

국외단기팀제훈련(부처간협업과정)

2018.7.1.~7.14.(14일간)

개별대통령기록관 구축운영을 위한 미국사례 조사연구

2018. 8



행 정 안 전 부
통 과 기 일 통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국외훈련개요 >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가. 트루먼대통령기록관(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나. 링컨대통령기록관(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3. 훈련분야 : 기록관리

4. 훈련기간 : 2018.7.1.~7.14.(14일)

훈련국가	기간	훈련내용
미국 (트루먼대통령 기록관 링컨대통령 기록관)	7.1(일)	○미국 미주리주 도착, 훈련준비
	7.2(월)~7.6(금)	○트루먼대통령기록관 교육훈련 - 기관소개 및 인사 - 연수내용 관련 기관 공통·중점사항 조사 - 전시관 견학프로그램 참여 - 트루먼, 클린턴 개별기록관 등 개별기록관 현황 조사 (클린턴대통령기록관 소개 및 견학)
	7.7(토)~7.8(일)	○이동(일리노이주), 방문결과 정리
	7.9(월)~7.12(목)	○링컨대통령기록관 교육훈련 - 기관소개 및 인사 - 연수내용 관련 기관 공통·중점사항 조사 - 전시관 견학프로그램 참여 - 최근 아카이브 발전방향 검토 등
	7.13(금)~7.14(토)	○미국출발→한국도착

5. 훈련기관

가. 트루먼대통령기록관

명 칭	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HSTPLM)			
소 재 지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홈페이지	http://www.trumanlibrary.org			
설립목적	미국 트루먼 대통령 기록물 보존 및 대국민서비스, 개인기록물 수집 및 전시관·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대통령의 업적, 사회적 공헌 홍보 등을 수행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립기록청 소속 13개 개별대통령기록관 ○ 약 80여 명 내외(관장 이하, 기록직, 학예직, 행정직, 인턴 등) ○ 1957년 건립(167만달러), 8,976㎡ 규모 ○ 문서 12백만쪽, 사진 12만장, 영화 500편, 도서 1만권, 구술 500편, 박물관 3만여 점 등 소장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루먼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보존, 서비스 ○ 개별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운영 ○ 트루먼대통령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및 장학금 수여 및 학술대회 후원 			
주요인사 인적사항	○ Kurt Graham : 현 트루먼대통령기록관장,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역사학 교수, 매크라켄 리서치 도서관 이사 등 역임			
교섭창구	Samuel W. Rushay : 아키비스트 감독관			
	전화	+1 816 268 8211	FAX	+1 816 268 8295
	E-mail	Samuel.rushay@nara.gov		

나. 링컨대통령기록관

명 칭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ALPLM)			
소 재 지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홈페이지	http://www.alplm.org			
설립목적	미국 링컨대통령의 기록과 역사를 보존하여 전 세계 수백만 방문자가 링컨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리노이주 역사보존센터 소속 대통령기록관 ○ 85명 내외(기록직, 박물관 담당자, 행정직, 인턴 등) ○ 2005년 건립 ○ 편지·일기 1억5백만쪽, 마이크로필름 9만 개, 사진35만 장 구술 1,200개, 테이프 8천개 등 소장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링컨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보존, 서비스 ○ 링컨대통령 박물관 운영 ○ 링컨대통령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금 수여 및 학술대회 후원 			
주요인사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la Konrowski : 현 링컨대통령기록관재단 CEO, 일리노이대학(Northeastern) 재단 이사, 시카고 인문학축제 전무이사 등 역임 ○ Alan Lowe : 현 링컨대통령기록관 관장, 부시(II)대통령기록관장,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장 등 역임 			
교섭창구	○ Michael Little : 최고운영책임자			
	전화	+1 217 785 7941	FAX	+1 217 558 8878
	E-mail	Michael.J.Little@illinois.gov		

6. 훈련결과 요약

훈련자	손용배, 박민웅, 임신영, 김영경, 손성근, 이용미	직급	사서사무관,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기록연구사, 기록연구사, 사서주사
소속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과기정통부 운영지원과,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18.7.1.~7.14.
훈련기관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링컨 대통령기록관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미국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 연구	보고서매수	82매
내용요약	<p>I. 훈련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0여 년 간 드러난 입법 미비 및 문제점 해결 ○ 국정과제의 하나인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새로운 대통령기록관리 모델 정립 필요 <p>II. 미국 대통령기록관 제도</p> <p>□ 대통령기록관 체제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년대 중반 이후 대통령기록물의 공공성 인식(의회 도서관 등),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 관리 시작 ○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한 이후 개별 기록관체제를 유지 <p>□ 대통령기록관 건립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즈벨트 대통령 방식)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대통령의 출신지 또는 정치적 활동무대 등에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후버, 루즈벨트, 트루먼 등 9명) ○ (존슨 대통령 방식) 1965년 대학 주도의 대통령기록관 건립, 대통령기록관 건물은 대학이 소유하되, 영구임대 방식으로 NARA에서 운영(존슨, 부시 등 3명) ○ (닉슨 대통령 방식) 1974년 대통령 녹취 기록물 및 자료보존법에 따라 NARA에서 관리했으나 이후 의회의 요구로 정부예산으로 건립 ○ (오바마 대통령 방식) 박물관, 교육시설,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로 건립, 개별기록관 체계에서 탈피, 모든 기록물을 NARA의 보존시설에서 관리(* 비공개 기록물은 워싱턴 나라 본부에서 관리) ○ (기타) 제 31대 후버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개인후원, 역사학회, 국립공원, 주 정부, 대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 대통령기록관리 법령의 변천

-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의 제정
 - 194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공식화
 - 민간에서 건립,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대통령기록관 제도의 토대 마련
 -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전직 대통령의 열람시설 확보 등을 명시화
- 1974년 대통령 녹취 및 자료 보존법
 -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제정
 - 닉슨 대통령의 불법도청자료에 대한 처분권 문제로 소송 발생 (대통령기록물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 대두)
 -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닉슨대통령의 기록물을 연방정부에서 보존, 서비스 하기 위한 절차 및 하위 규정을 마련
-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 닉슨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 공개권 분쟁을 계기로 제정
 - 대통령, 부통령 및 보좌관 등의 기록물 모두 연방정부의 소유 명문화
 -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 의무, 최장 12년의 접근제한 기록물 지정권한, 접근제한의 예외조항 등(레이건 이후 적용)
- 1986년 대통령기록관법 개정
 - 1955년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법'의 개정
 -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통령기록관의 크기를 7만 평방피트로 제한하고, NARA의 청장은 건축표준 등을 제시
- ⇒ **호화스럽거나 기록물관리에 비효율적인 대통령기록관의 건립 제한**
-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 2001년 조지 부시(2세) 대통령의 행정명령 13233*호를 무효화 하는 법안내용 개정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권한 등 무효화 2001년 이후 비공개 된 수천 만건의 기록물이 공개되는 계기
 - 대통령기록관 기부내역의 공개를 위한 절차 규정
- 2007년 대통령기록관 기부금 개혁법 제정
 -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과 발맞춰 대통령기부금 건립 기금의 투명화를 위해 제정, 매 분기 200달러 이상의 기부자 명단 공개
 - *클린턴 대통령 이후 대통령재단의 비대화, 건립 기부금의 댓가성 논란 등 발생
- 201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 접근제한 기록물 해제 시, 전, 현직 대통령에게 통보, 의견반영, 전, 현직 대통령 반대 시 비공개 하되 법원 판결 가능
 - 대통령 대리인의 기록관리 관련 범죄 시 원본제공 불가
 - 비공식 전자메세지를 활용한 공식 업무 시 기록물 공개의무 부여
- 기타 대통령역사기록법(2008), 대통령직 인수법(1963), 행정명령 등

□ 대통령기록관리 조직 및 기능

- NARA 일원화,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 집중 역량 등 전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추진(*입법아카이브,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에 대통령관련 부서 편제)
- 입법아카이브센터, 대통령사무부서, 대통령자료실, 교육, 공공프로그램 부서, 전시부서 등

□ NARA와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관계

- 개별 대통령기록관장은 국립기록청장이 임명하되, 전직대통령과 협의
- 개별 대통령기록관장은 NARA 소속 관료이자 민간재단과 협력하는 유능한 경영자의 역할 필요(*명망있는 역사학자, 행정학, 조직학 교수, 기부금 전문가 등), NARA 출신 관료 등 임명)
- NARA는 대통령기록관 사무부서를 통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과 업무를 조율하나, 운영상 권고 또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 대부분의 기능과 권한은 개별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 단, 개별 대통령기록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대부분 NARA소속 직원으로 NARA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기록물 관리 수행)
-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NARA 소속 직원들은 다른 기록관으로 근무지 변경 가능
- 대통령 후원 민간개단은 기록관의 건립, 이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록물 수집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기금마련에 주력

□ 미국 대통령기록관 자원 및 운영

- 대통령기록관 자원 마련
 - 자원은 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초 예산, 운영 수익 등 신탁기금, 기부금, 기록관 건립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운영기금 등이 있음
 - 2017년 NARA 총 예산 약 4억 달러 중 26%에 해당하는 약 1억 5백만 달러가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예산임 이중 개별기록관 지원금은 약 6,500만 달러로 기관별 약 5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음(*직원 월급, 기록관 시설 보수 등에 투입)
 - 시설관리 요원 등에 대한 월급, 기타 운영비 등은 대부분 운영수익이 포함된 신탁기금에서 처리, 운영수익은 대부분 전시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 수익 등임
 - 기초 예산 및 신탁기금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경비로 소진되므로 교육서비스,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기금마련이 절대적
- (*1986년 대통령기록관법의 개정으로 기록관 건립 재단은 건립비용의 20%를 운영기금으로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 이후 40%, 오바마 대통령부터는 60%로 상승)
- 인력구조 및 역할
 - 2017년 기준 대부분의 기록관에서는 약 80~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 이 중에서 약 26명은 NARA소속 직원이며, 시설관리직, 청원경찰, 인턴,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어 기록관별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려움

- NARA 소속 직원들은 아카이브 영역 뿐만 아니라 점차 전시, 교육, 구술사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인력관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업무영역 확장
- 대부분 NARA 소속 직원들이 1~2명의 지원팀(인턴 등),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업무 추진(*2017년 현재 클린턴 케네디 기록관 등에 33명의 NARA소속 직원 파견 후버 18명 오바마 13명 등)
- NARA 소속 직원들은 주로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전문가, 아카이브 테크니션, 큐레이터, 시청각 보존복원 담당자 등의 역할을 수행

○ 대통령기록관리 일반현황

- 레이건 대통령 이후 시작된 전자기록관리가 부시(II) 약 77테라바이트, 오바마 약 250테라바이트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005년 개발이 시작된 ERA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물을 이관, 이관 완료 후 개별기록관에 제공
- 접근제한 기록물은 최장 12년까지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제도로 임기 중 어느때라도 지정이 가능하나 대부분 임기 종료 직전 시리즈별로 지정
-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은 모든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갖고 회고록, 자서전 등에 활용 가능
- 201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기록관리 관련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는 대리인의 원본 열람 불가
-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1월 20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은 NARA의 법적 보존시설(임시시설 포함)로 이관되며, 최종적으로는 NARA소속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개별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 1957년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데이에 건립, 건립 규모는 약 10만 평방피트이며 기록물 서비스 및 활용 공간의 확장을 위해 두 차례 증축
- 트루먼이 실제로 사용했던 사무실이 보존되어 있어 관람이 가능하며 기록관 중앙에 가족묘가 있음
- 2차 세계대전, 원폭투하, 트루먼 독트린, 6.25전쟁, 마셜플랜, 냉전, 베이비붐 세대 등 20세기 세계사를 관통하는 역사기록물이 전시
- 향후 기록관 건립 시 증축 비용 등을 고려한 공간의 확보 또는 최소한의 시설 증축 공간 확보 필요

○ 주립 링컨 대통령기록관

- 2005년 변호사로 활동했던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건립, 건립예산은 약 1억5천만 달러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
- NARA가 아닌 주정부 역사보존센터 소속으로 일리노이주 역사보존센터의 역할을 겸임
- 재단 최고경영자는 인문학 및 기금 모금 전문가이며 기록관장은 레이건, 부

시(Ⅱ) 기록관장을 지낸 인물임

- 링컨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 출신의 그랜트, 레이건, 오바마 대통령 관련 사업을 진행, NARA 소속 대통령기록관과도 네트워크 설정, 향후 대통령기록관 조사, 연구 시 거점이 될 수 있음
- 전시에 홀로그램, 3d 기법 등 최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시공간에 음향을 살려 생동감을 주고 있음, 별도의 어린이 전시공간도 구축

□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새로운 대통령기록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기록관을 검토할 경우 대략 두 가지 모델을 방문기관을 통해 알 수 있었음
- ① 혼합형 : 대통령 관련 기록물 외에 관람객 및 연구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 기록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델
 - 대통령 기록물 외에 일리노이주 역사(링컨기록관), 헤밍웨이 컬렉션(케네디기록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여 관련 기금 모금, 관람객 유도 등, 기록관의 장기지속적인 운영에 유리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지방거점대학 등과 협의하거나, 유명인, 예술가의 컬렉션 확보, 또는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협력 등을 통해 혼합형 기록관 구축 가능
- ② 오바마형 : 기록물을 정부소속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하되 기록물 일체를 디지털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기록물 활용에 주력, 기타 문화, 체육, 교육, 복지 시설 등을 추가한 대통령 센터를 구축 지역 및 사회에 기여
 -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형태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 가능, 기념사업회를 주축으로 활동할 경우 적합
 - 단,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회적 역할의 기록화 및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목차 >

I. 머리말(훈련개요 및 서술방향)	1
II. 미국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2
1.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변천 및 건립방식	2
2. NARA 및 대통령기록관의 조직과 기능	14
3. 미국 대통령기록관리 조직 및 기능	12
4. 미국 대통령기록관 자원 및 운영	17
III. 미국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활용현황	22
1. 대통령기록물 관리 주요 현황	22
2. 대통령기록관 이용 현황	30
3.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프로그램 현황	32
IV. 개별 대통령기록관 운영 사례	35
1.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35
2.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43
3.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47
4. 주립 링컨 대통령기록관	50
5. 오바마 대통령센터	64
V. 맺음말(시사점 및 제안사항)	67

※ 참고문헌

1.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본격화 하였다. 별도의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모든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관리, 지정 기록물 보호제도 등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리는 지난 10여 년을 유지해 왔으나, 그 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최근 2~3년 간 제기된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논란과 시민사회, 학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최고기록이자, 후대에 전승해야 할 역사유산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 통합 대통령기록관 체제에서는 대통령 기록의 민감성으로 인해 보존위주의 정책을 추진, 대통령별 특화된 서비스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재임 당시의 국정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재임전후의 개인기록,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기록수집이 미흡한 편이다. 덧붙여 통합기록관 1곳만을 운영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방문열람 등에도 일정부분 접근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제도,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통령기록관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자, 기록관리 선도국가로서 그 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통합 및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모두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 제도를 통해 각 대통령별로 재임 시기 국정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높이고 폭넓고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소속의 대통령기록관 외에도 주정부를 통한 대통령기록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어 주정부의 독자적인 대통령기록관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기록관리 동향, 대통령기록관 운영현황 및 교육·전시프로그램 사례 등을 살펴보고, 방문기관인 트루먼대통령기록관, 링컨대통령기록관 및 주요 대통령기록관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¹⁾

II. 미국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1. 대통령기록관의 변천 및 건립방식

가.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역사

미국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기 때문에 기록관임에도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으로 불리는 미국식 대통령기록관제도가 확립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의 개별 대통령을 건립한 1940년 이후였다. 그 이전 대통령기록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않거나 의회 등에서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역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루즈벨트 대통령 이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대통령이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저로 옮겨가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까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워싱턴 대통령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파괴하거나 사저로 옮겨갔으며, 심한 경우 후손들에 의해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을 전후해서 의회 도서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공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893년에는 헤이스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오하이오 역사학회와 후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 민간재단에서 기념 도서관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면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측근들은 1903년 기록을 의회 도서관에 기부하면서 컬렉션이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초창기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의회 도서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점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보존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 직전 대통령인 후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을 스탠포드대학교에 기증하여 전쟁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에 기록물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대통령기록물은 위에서 언급한 의회 도서관 이외에도 몇 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사적지와 오랫동안 인연을 가져온 개인단체가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초대 워싱턴 대통령의 기념관인 마운트 버논과 제7대 잭슨대통령의 기념관인 허미티지(Hermitage) 등이

1) 글의 내용 중 참고문헌을 달지 않은 사항은 국외단기 훈련 과정에서 면담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 NARA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 가족이나 후원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토마스 제퍼슨 기념재단, 우드로 윌슨재단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대통령사적지로 지정하여 일괄 관리하는 경우로 제2대 애덤스 대통령 및 그의 아들 제6대 켄시 애덤스 대통령의 도서관이 ‘애덤스 국립사적지’에 있다. 네 번째는 대통령의 모교에서 기증받아 운영하는 경우로 제5대 제임스먼로 대통령의 도서관은 가족들이 대통령의 모교인 윌리엄 & 메리 대학교에 일체를 기증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링컨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은 일리노이주 역사 보존센터에 소속되어 주정부에 관리하고 있다.

< 비NARA 대표적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형태 >

구분	대통령	기관명	운영주체	소재지	운영유형
1대	조지 워싱턴	마운트버논	마운트버논 부녀회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	개인 단체
7대	앤드류 잭슨	허미티지	허미티지 부녀회	테네시주 내슈빌	
3대	토마스 제퍼슨	몬티셀로	몬티셀로재단 (토마스 제퍼슨기념재단)	버지니아주 샬롯빌	가족/후원 설립재단
4대	제임스 매디슨	몬펠리어	몬펠리어 재단	버몬트주 몬펠리어	
16대	아브라함 링컨	링컨 도서관 및 박물관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주정부
2대 6대	존애덤스 켄시 애덤스	애덤스 국립사적지	국립공원관리청	매사추세츠주 켄시	국립 공원청 (NPS)
5대	제임스먼로	제임스먼로 기념관	윌리엄 & 메리대학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	모교/ 기타단체
2대	존 애덤스	존 애덤스 센터	매사추세츠 역사학회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헤이스 대통령센터	오하이오 역사학회 헤이스 대통령센터 주식회사	오하이오 프리몬트	

2)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이전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에 대해 고민하면서 단편적이거나, 기록물이 훼손된 채 보관되지 않도록 완전한 기록물 보존소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40년 대통령기록관을 민간후원재단

에서 설립하고 연방정부에 기부채납하여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이를 운영하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기록관 체계를 완성하였다. 루즈벨트의 대통령기록관 모델은 앞서 언급한 헤이스 대통령 도서관과 후버 대통령의 전쟁도서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록관을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건립,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도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등 전문가가 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보존과 학술연구지원 등 활용에 중점을 둔 아카이브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루즈벨트의 대통령기록관 모델은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Presidential Library Act: PLA)의 제정으로 공식화 되었다.

한편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논란은 계속되었는데,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 PRA)이 제정되면서 이 법의 제정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공식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미국에는 후버 대통령을 비롯하여 31대~44대까지 총 14개의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었다.

< NARA 소관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

구분	대통령기록관	개관일	소재지	개관순번
31대	후버(Hoover)	62. 08. 10	아이오와(West Branch)	4
32대	루즈벨트(Roosevelt)	40. 07. 04	뉴욕(Hide Park)	1
33대	트루먼(Truman)	57. 07. 06	미주리(Independence)	2
34대	아이젠하워(Eisenhower)	62. 05. 01	캔사스(Abilene)	3
35대	케네디(Kennedy)	79. 10. 20	메사추세츠(Boston)	6
36대	존슨(Johnson)	71. 05. 22	텍사스(Austin, Univ of Texas)	5
37대	닉슨(Nixon)	90. 07. 19	캘리포니아(Yorba Linda)	8
38대	포드(Ford)	81. 04. 27	미시건(Ann Arbor)	7
39대	카터(Carter)	91. 11. 04	조지아(Atlanta)	9
40대	레이건(Reagan)	91. 11. 04	캘리포니아(Simi Valley)	10
41대	부시 I(Bush I)	97. 11. 06	텍사스(Texas A&M Univ.)	11
42대	클린턴(Clinton)	04. 11. 18	아칸소(Little Rock)	12
43대	부시 II(Bush II)	13. 01. 20	텍사스(Dallas, SMU Univ.)	13
44대	오바마(Obama)	건립예정	일리노이(Chicago, Jack Park)	14

* 44대 오바마대통령의 경우 인터넷 오바마대통령기록관은 제작 완료, 오바마센터는 현재 기록관의 아닌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형태로 개관 예정

나. 대통령기록관의 건립 방식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록관을 민간주도로 건립하여 정부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택한 이래 이 방식은 미국 대통령기록관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루즈벨트 이후 대통령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향 또는 정치적 활동지역을 대통령기록관 부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존슨대통령이 대학에 기록관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기록관이 탄생하게 되었고, 2017년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예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건립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루즈벨트 대통령 방식(민간재단 건립)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건립 이후 민간 기부채납, 연방 정부 운영의 대통령기록관 체제를 확립하였다. 루즈벨트 이래 후버, 트루먼, 카터, 클린턴 등 명의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였다.

2) 존슨 대통령 방식(대학주도 건립)

존슨 대통령은 1960년대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였는데 텍사스 주립대학이 건물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건물은 대학이 소유하되 기록관을 연방정부에 영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 부자 모두 텍사스의 대학에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였다.

3) 닉슨 대통령 방식(정부건립)

닉슨 대통령은 1972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였다. 그의 기록물은 1974년 대통령 녹취 기록물 및 자료보존법에 따라 NARA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의회의 요청으로 정부에서 건립을 주도 닉슨 대통령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 건립되었다.

4) 오바마 대통령 방식(대통령센터 건립, 개별 대통령기록관 미건립)

가장 최근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센터를 건립, 기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체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순수 민간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재임 당시 모든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NARA에 보관하고 자신은 기록관이 아닌 문화시설로서의 대통령 센터를 구축하였다. 이 센터는 순수 민간 단체로 연방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형태이다.

다.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법·규정의 변천연혁

미국에서 대통령기록물관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대통령기록관법(Presidential Libaray Act: PLA, 1955)', '대통령 녹취록 및 자료 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s Act: PRMPA, 1974)',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 PRA, 1978)', '대통령기록관 기부금 개혁법(The Presidential Library Donation Reform Act, 2007)' 등이 있다.

1) 1955년 대통령기록관법의 제정

1955년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법'은 194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공식화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민간에서 건립된 대통령기록관이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연방정부에 인계되고 연방정부에서 이를 운영하는 미국식 개별대통령기록관 제도가 만들어졌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전직 대통령의 열람시설 확보 등을 명시하여 현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이룬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1970~80년대 주요 법령의 변천

1974년 제정된 '대통령 녹취 및 자료 보존법'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닉슨 대통령의 불법도청자료에 대한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시민단체와 소송까지 이어졌고 결국 시민단체의 승소로 이 기록물들은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닉슨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존·서비스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이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NARA가 소장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닉슨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 공개권 분쟁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으로 대통령기록은 명실공이 국가소유가 되었으며, 부통령, 보좌관 등의 기록물도 모두 연방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법 적용 이후 부임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 법에는 이 외에도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 의무 명확화, 최장 12년의 접근제한 기록물 지정권한, 접근제한의 예외조항 등도 명시되었다.

1986년에는 1955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통령기록관의 크기를 7만 평방피트로 제한하고 NARA의 청장은 건축표준 등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호화스럽거나 기록물관리에 비효율적인 대통령기록관의 건립을 막고자 한 점이다. 또한 건립금액의 20%를 별도의 운영비로 연방정부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건립금액을 낮추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경비를 상쇄하고자 하는 NARA의 노력이 반영되었다. 운영 경비의 비율을 최초 부시(I) 대통령 때 20%였다가 클린턴과 부시(II) 대통령 때 40%, 오바마 대통령부터는 60%까지 상승하였다. 부시(II)대통령은 이 기금의 마련을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모금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3) 2000년대 이후 주요 법령의 변천

2007년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은 2001년 조지 부시(II) 대통령의 행정명령 13233호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조지 부시(II) 대통령은 12년의 접근제한이 만료되는 레이건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전·현직 대(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공개 보류 및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행정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령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개정법은 이러한 조치들을 무력화 시키고 기록물에 대한 권한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부시(II) 대통령이 2001년부터 비공개한 수 천만 건의 문서들이 공개되었다. 또한 이 개정법은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해 개인들이 기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같은 해 새롭게 도입된 ‘대통령기록관 기부금 개혁법’은 기부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200달러 이상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법이었다. 2)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전 45만 달러 기부를 약속한 유명 작사가의 전남편을 사면해 주면서 재단의 기부금 투명화에 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대통령을 후원하는 민간재단은 대통령기록관의 건립과 운영 자금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때부터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주목되면서 재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클린턴 재단은 2016년 한 해에만 22,5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³⁾했으며 자산도 35,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재단이 되었다. 대통령기록관 기부금 개혁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부금의 투명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개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접근제한 기록물의 공개 권한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접근제한 기록물 해제 시 NARA청장은 전, 현직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2) 배인성, 2007, 대통령 기록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28쪽, 정용오, 2011,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9~52쪽, 정수진, 2016, 미국 연방기록물법 및 대통령 기록물법의 개정과 그의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8~31, www.archives.gov/about 참조

3) Clinton Foundation, 2017, 2016 Annual Report

다. 의견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비공개 하되 소송제기가 있으면 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결하도록 한다. 전직 대통령이 찬성하고 현직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는 비공개, 전직 대통령이 반대하고 현직 대통령이 찬성할 경우는 공개하되 전직 대통령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기간동안 공개를 보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그 간 논란이 되었던 접근제한 기록물의 공개·비공개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전직 대통령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기록물 유출, 파기 등 기록물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본제공이 불가하도록 한 규정, 비공식 전자 메시지를 활용한 공식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는 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4) 기타 대통령기록관 관련 법령

196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⁴⁾이 국민이 연방정부의 문서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대통령역사기록법(Presidential History Records Preservation Act: PHRPA)'은 이 시기 의회에 보고된 '대통령기록관의 대안적 모델에 관한 보고'와 관련된 법으로 모든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간의 예산계획을 상하원의 예산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PTA)'은 전직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하여 집행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인데 여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종사자에 대한 기초적인 기록관리 교육 및 개인기록과 대통령기록의 구분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외에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명령 13489호는 대통령기록법의 실행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13233호에 따라 비공개 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13526호는 보안정보의 보호와 해제에 관해 명령한 규정이다. 이 두 명령은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공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외에도 대통령기록 규정, 지침,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록물 관리 지침 등 다양한 규정과 지침이 존재한다.⁴⁾

4) www.archives.gov/about/laws 참조

2. NARA 및 대통령기록관의 조직과 기능

가. 미 국립기록청 및 주정부 기록물관리기관

1) NARA의 설립 연혁

미국의 기록물 관리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NARA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 기록물관리기관(State Archives)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방정부 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레코드 센터로 이관된 후 보존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구보존이 결정된 기록물이 NARA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NARA는 1934년 창설되어 1949년 총무처 소속으로 편입되었으나, 소속기관이라는 조직적 위상으로 인해 기능, 조직, 인원, 예산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1985년 현행의 독립청으로 승격하였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 연구자, 언론관계자, 의회, 법원, 연방정부기관, 일반 시민 등 소장문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증거자료인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 NARA 주요 연혁 >

연도	내용
1934	국립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NA) 설립
1935~1949	1935년부터 활동개시, 이 기간동안 7백만 입방피트의 연방문서 보관완료
1948	제1차 후버위원회(First Hoover Commission)의 대의회 권고 : 급격히 불어나고 있던 방대한 연방 기록을 유지하는 한편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개선 하기 위한 범정부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함
1949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설립 연방조달청 산하에 NA 배속, 국립문서기록관리처로 기관명 변경(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NARS)
1950	연방기록법(Federal Records Act) 통과로 전국 다수 지역에 NARS 산하의 연방 기록센터(Federal Records Center: FRC) 설립
1950~1952	전국에 9개의 연방기록센터 설립
1970	1천 5십만 입방피트 이상의 기록을 수장하고 있는 13개의 연방기록센터 완성
1985	행정부 내 국립기록청으로 독립(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2) NARA의 주요 임무

NARA의 임무는 가치 있는 정부 기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연방정부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설명책임성을 높이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활동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바탕이 된다.

주요 기능은 미국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절차 제정, 입법·사법·행정부의 필수 기록의 인수, 정리, 기술, 보존, 열람제공, 대통령기록관 체제 관할, 연방 비밀의 분류 및 해제 정책 관리, 연방정부의 보존기록관리, 박물관 운영,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 진행, 모든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활동 감독, 타 연방 정부기관 기록의 한시보관 등이다. 이 외에도 연방관보를 발행하고, 국립역사편찬기록위원회(NHPRC)를 통해 기금을 제공하는 일 등도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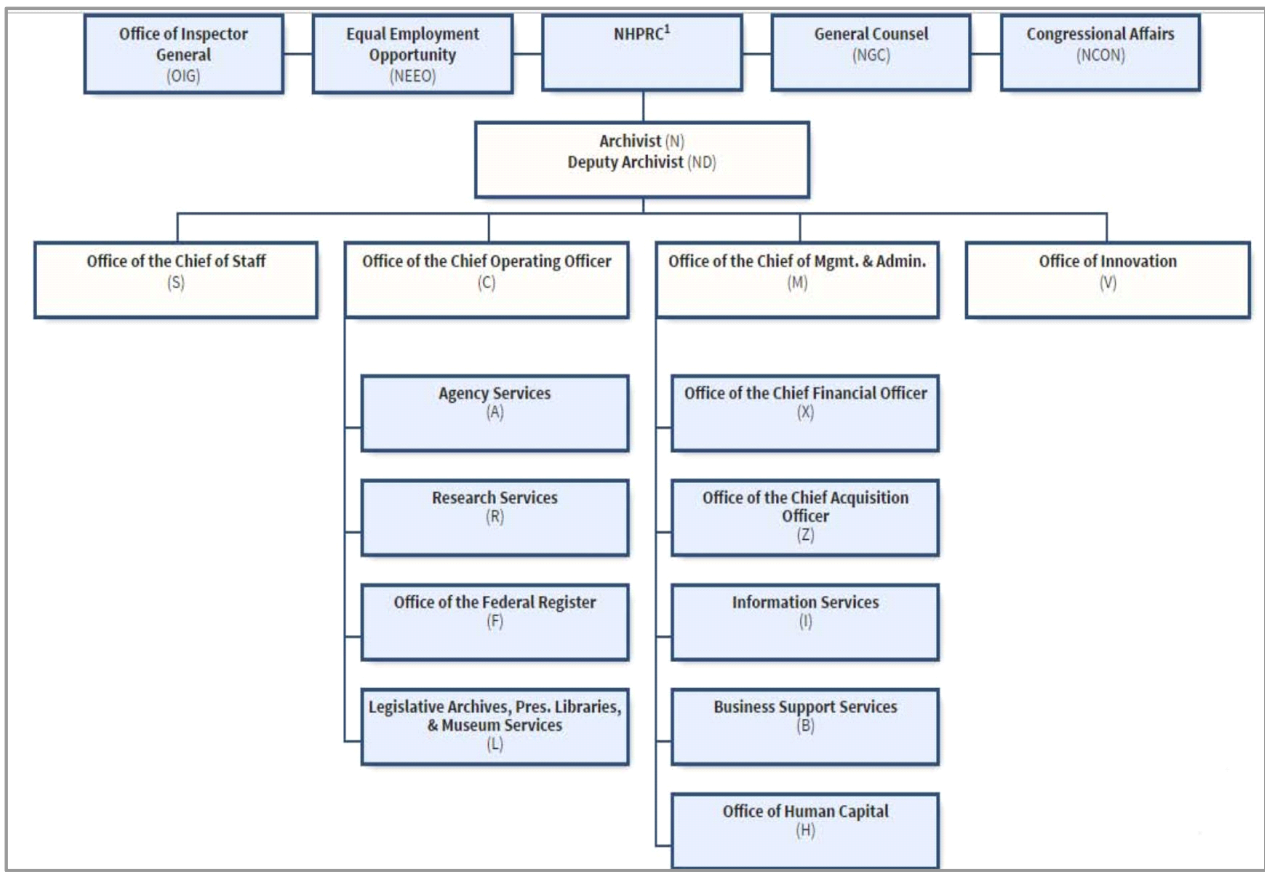
현재 약 125억 쪽 상당의 연방정부 및 대통령 문서, 795 테라바이트의 전자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미국 전역의 공공 조사열람실에서 '내셔널 아카이브즈 카탈로그(National Archives Catalog)'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이 외에도 NARA에서는 웹사이트,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박물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13곳의 대통령기록관 박물관을 통해 주요 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NARA에서는 2018~2022 전략계획을 통해 기록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고객과의 유대, 협력 및 서비스 강화, NARA의 존재가치 극대화, 디지털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NARA직원 교육(인재양성) 등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NARA의 조직구성 및 부서별 역할

NARA는 고객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조정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원과 경영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보장한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ARA 조직도⁵⁾ >



우선 NARA에는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채용평등담당관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국립역사편찬기록위원회(NHPRC), 법무실 (General Counsel), 의회담당관실(Congressional affairs)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NARA를 대표하는 국립기록청장이 있는데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다. 부청장은 NARA의 고위 경력 전문직 출신들로 청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청장과 부청장 산하에 비서실(Office of the Chief of Staff), 혁신실(Office of Innovation), 운영부(Office of the chief Operation Officer), 관리행정부(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등이 있다. 이 중 비서실은 청장과 부청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NARA의 대내외 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주관한다. 혁신실은 NARA의 열린정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온라인 공공 카탈로그, 디지털화 전략, 파트너십 활동, NARA의 웹 및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계획,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부는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산하에 기관서비스국(Agency

5) www.archives.gov/about/organization

Services), 입법기록·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Legislative Archives, Presidential Libraries and Mesuem Services), 조사서비스국(Research Services), 연방공보국(Office of the Ferderal Register) 등이 있다. 관리행정부는 제반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로 그 산하에 업무지원과(Business Support Services), 구매과(Office of the Chief Acquistiion Officer), 재무과(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인적자원과(Office of Human Capital), 정보과(Information Services) 등이 있다.

4) 주정부 기록물 관리

주정부 기록물관리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레코드센터 를 거쳐 주정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후 폐기 또는 보존이 결정된다. 미국 은 주정부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과 업무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주정부 공문서외에도 족보, 인디언관계자료, 여성사 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강연회, 전시회, 교육센터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나. NARA의 디지털기록 보존 전략

1) 배경 및 범위

NARA는 최근 기록관리 정책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미국내 연 방정부의 기록물이 이미 전자기록 중심으로 바뀐지 오래이며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록물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NARA는 디지털 중심의 기록관리 전략을 수립하였는 바, NARA의 핵심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NARA는 125억 쪽이 넘는 유일본 문서를 비롯해 전자기록, 지도, 도표, 항공 및 스틸 사진, 박물관, 영화, 음성 녹음, 녹화 영상 등을 소장하고 있다. NARA 소장 기록물의 주인은 미국 시민들이고 가치가 높은 정부 기록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NARA는 개방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한 다는 사명을 추구한다. NARA가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제작한 디지털화 사본기록을 포함한 NARA 소장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다.

NARA는 미국법전 제44편 2107조와 2203(g)조에 의거하여, 역사적 가치나 기타 가치로 인해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NARA 청장이 결정한 모든 디지털 생산기록(born-digital records)과 디지털화 사본기록(digital

surrogates)의 내용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여기서 '접근(access)'이란 기록과 그 내용이 계속 이용될 수 있고, 그 디지털 기록이 생산된 목적에 핵심적이고 부합하되 진본성, 정확성, 기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진전략

NARA는 기록의 규모와 기술 및 표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이러한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소장 중인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NARA의 목표는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존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완화하고 실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표준과 절차의 문서화, 우선순위의 설정, 파일에 대한 관리, 진본성, 보존메타데이터, 기관 교류 등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과 절차의 문서화 : NARA는 디지털화 사본기록 생산을 위한 내부 표준을 문서화하는 한편 미국법전 제44편 3302(3)조에 의거하여 연방기관에서 디지털화 사본기록 생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NARA에 이관될 전자기록의 최소 메타데이터와 선호 파일포맷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NARA는 공개 표준 기반 포맷의 사용을 증진하고 향후 기록에 대한 접근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자발적인 표준을 받아들였다. NARA는 디지털 기록 보존 생애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록의 관리와 NARA 이관에 관한 지침을 연방기관에 제공한다.

우선순위 : NARA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 디지털 보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조치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나온 일정에 따라 디지털 보존 업무를 수행한다. 소장 기록의 포맷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아직 실용 보존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복잡한 기술적 조치가 요구되는 취약 파일 포맷을 파악한다.

파일 관리 : NARA는 신뢰받는 디지털 객체 보존서고(Digital Object Repository)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기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을 제공한다. NARA의 보존서고는 신뢰받는 디지털 보존서고를 위한 OAIS 참조 모형(ISO 14721:2012)'에 명시된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뢰받는 디지털 보존서고란 현재와 미래에 지정 공동체에게 관리된 디지털 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존서고를 말한다. NARA는 원본 포맷의 주요 특징을 유지하는 선별된 파일 포맷으로 적극적으로 파일을 표준화(normalizing)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파일 포맷의 수를 최소화할 것이다. 한편 원본 포맷 파일은 접근 빈도가 낮은 보존서고에 보관한다.

진본성 : 진본성이란 원본의 정확한 재현물로서의 기록 신뢰성을 말한다. NARA는 진본성 보장을 위해 OAIS 참조 모형(ISO14721:2012)에 따라 모든 디지털 보존 조치를 문서화한다.

보존 메타데이터 : NARA는 수동 및 자동 보존 절차를 통해 소장 디지털 기록을 장기간에 걸쳐 보존하기 위해 각각의 디지털 객체 열람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영구 디지털 식별자와 기록 보존 메타데이터를 부여할 것이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핵심적인 맥락 정보, 행정 정보, 기술(descriptive) 정보, 기술(technical) 정보를 디지털 객체와 함께 보존한다.

기관교류 : NARA는 국내·외 디지털 보존 공동체와 적극 교류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침을 참고하며, 디지털 보존 문제 대응을 위해 공조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NARA가 새로운 위험 요인, 실무, 표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NARA는 정보기술(IT) 산업이 새로운 기술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산업계와도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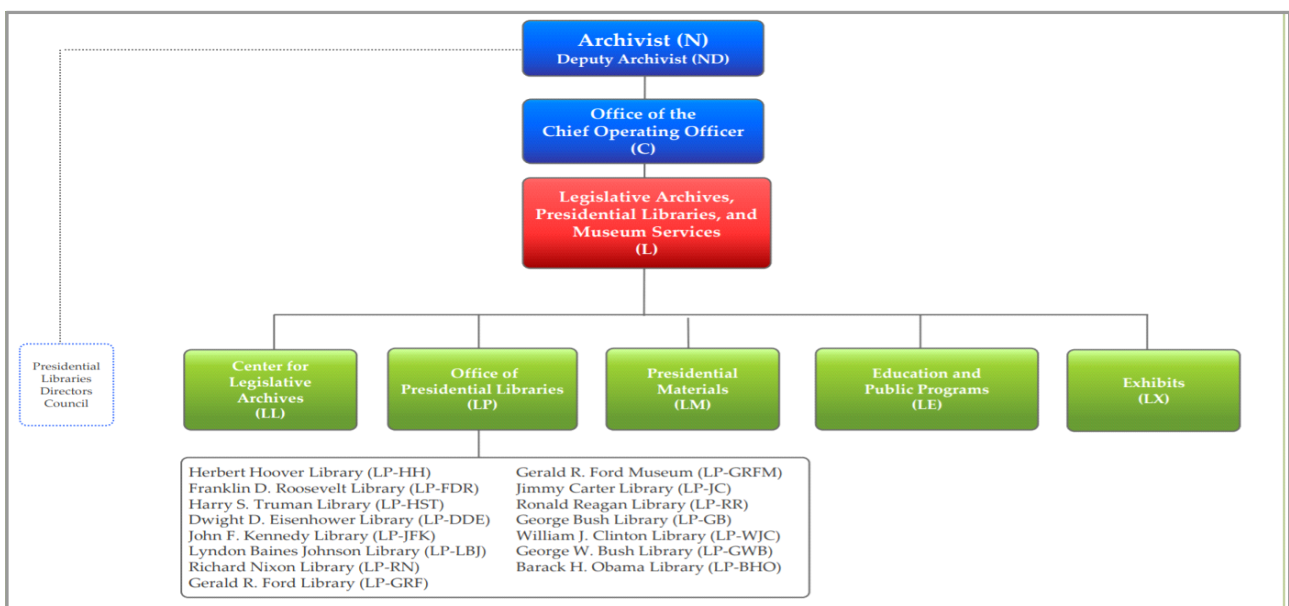
3. 미국 대통령기록관리 조직 및 기능

가.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조직 및 기능

1)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조직 및 임무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NARA 소속의 14개 대통령기록관을 지칭한다. 이 시설들은 NARA의 ‘입법기록,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에 소속되어 있다.

< NARA ‘입법기록,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 조직도’ >



6) www.archives.gov/files/about/organization/orgchart-1.pdf

‘입법기록,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 산하에는 총 5개 부서가 있다. 입법 아카이브센터(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LL), 대통령기록관사무부서(Office of Presidential Libraries: LP), 대통령자료실(Presidential materials: LM),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Education and Public Programs: LE), 전시(Exhibits: LX) 등이다. 이 중 대통령기록관 사무국에 14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소속되어 있다. 이 부서에는 입법 아카이브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기록관과 관련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별 대통령기록관장 위원회도 NARA청장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기록,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의 역할 중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①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존, ②역사자료의 이용과 신설 ③대통령기록관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④대통령기록관의 예산관리 통제 및 감독 ⑤대통령기록관의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 ⑥각 기록관으로의 직원 파견 ⑦NARA 행정국 및 여러 국들과의 연계를 통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보존 ⑧기록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 정부와 전직 행정부의 연락 유지 ⑨대통령기록물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2) 입법 아카이브,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의 산하 부서의 역할

소속 부서 중 대통령자료실은 현직 대통령의 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는 1997년 NARA 조직 개편 당시 백악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국 산하 부서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과 선물을 보관하는 NARA의 기록보존서고, 기타 기술적 지원과 안내에 대한 정보를 백악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덧붙여 현직 대통령에게 이관에 대한 문제를 조언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대통령기록사무부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내부정책 수립보다는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요소(의사결정, 직원고용, 예산, 활동계획과 보고, 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서비스 정책)에 관여한다. 크고 작은 결정은 반드시 연방정부와 민간 후원조직의 정책과 절차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인사, 예산, 계약, 획득, 문서 접근과 보안 그리고 비밀해제와 같은 분야에서의 연방정책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기록관사무부서는 개별 기록관의 지역 경제, 노동조합, 고용율과 같은 외부 경제문제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임금, 유지, 장비와 같은 기초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방 자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모든 기록관의 매년 예산 요청을 NARA의 예산관리국과 의회로 보낸다. 현재 NARA의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는 총 14개의 개별기록관이 있다.

나. NARA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관계

1)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개별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

대통령기록물은 최초 이관 후 5년 간 일반에 비공개 되며, 현대통령, 전직대통령, 의회 및 법원만 접근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NARA에서는 이관 받은 기록물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는 지역의 임시보관소에서 보관,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어 정부에 기부채납이 되게 된다. 1차적인 정리가 끝나고 개별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되면 NARA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며, 정리기술 작업을 시작한다. 대개 5년의 정리기간 동안은 기록물의 등록 작업이 이루어지며, 정리기술 등 서비스를 위한 작업은 기록관마다 다르지만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후 대부분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장은 국립기록청장이 임명하되,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NARA소속 공무원이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민간 후원재단과도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이다. 즉 NARA와 민간 후원재단 사이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공공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NARA에 업무 협의, 보고, 기록관 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민간의 운영과 참여 독려, 재단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의 유능한 관료이자 기업가적 운영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 대부분 역사학 교수, 행정학, 조직학 교수-주로는 기부금 전문가- 등 사회적 명망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가 낙점된다. 이 외에도 많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NARA출신 관료를 관장으로 임명해서 NARA와의 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행정효율을 도모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한다.

2) NARA와의 업무관계 및 재단의 역할

NARA는 대통령기록관 사무부서를 통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직 및 기능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운영상 권고 또는 자문의 역할만 수행을 수행할 뿐 대부분의 기능과 권한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직원들은 NARA 소속 직원으로서 NARA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수행한다.

한편,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직원들 중 NARA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개별대통령기록관 또는 NARA로 근무지를 변경 할 수 있으나,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 중 하나는 건립을 주도한 민간 후원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건립 이후 대통령기록관의 구술 프로젝트, 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획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다. 대표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부금 모금 운동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 기념품 사업, 연간회비 납부 등이 있다.

240여년의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이자 대통령 중심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삼은 미국에서 대통령기록물은 역사기록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개인 혹은 그의 정치세력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역사기록물로 행정부, 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모두가 보존해야 할 후대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미국 대통령기록관 재원 및 운영

가. 대통령기록관의 재정현황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자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초 예산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배정하는 기금이다. 두 번째는 신탁기금으로 전년도 운영관련 이월금, 박물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 복사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운영수익이다. 세 번째는 기부금으로 구술 프로젝트 등 기록물 수집, 활용을 위한 특별한 기획, 행사 등을 위해 재단 등에서 모금한 기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986년 대통령기록관법 신설 이후 운영비 마련을 위해 건물 건립 비용의 20%를 추가로 재단에서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금액이 있다.

1) 의회 예산 및 운영수익 예산

2017년 NARA의 총 예산은 약 4억달러인데 이 중 입법 아카이브, 대통령기록관 및 박물관 서비스국 예산은 26% 정도인 약 1억5백만 달러로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13개 개별 대통령기록관 지원금은 약 6,500만 달러로 기관별 약 500만 달러를 지원 받은 셈이다. 이 자금은 대부분 기록관 직원의 월급,

기록관 시설 보수 등에 투입된다. 따라서 기록관별로 채용된 운영인력의 월급,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프로젝트 및 국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재단의 지원금이 절대적이다.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입장료 수익 및 기념품 판매 등 운영이익, 역사기록물간행위원회 등의 특별 지원금도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들의 운영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자금 현황 >

대통령 기록관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운영 이익	기타 수입	기타 지출	투자 수익	총수익	이월금	총계
후버 (Hoover)	271,489	190,363	81,125	14,218	-	50,867	146,210	754,841	901,051
루즈벨트 (Roosevelt)	1,318,837	901,629	417,207	90,272	-	431,917	939,396	4,162,848	5,102,244
트루먼 (Truman)	740,877	807,878	(67,001)	28,638	(545)	122,823	85,044	1,625,452	1,710,456
아이젠하워 (Eisenhower)	724,760	563,716	161,043	10,666	(51,999)	32,686	256,394	678,375	934,796
케네디 (Kennedy)	4,414,807	3,163,828	1,250,980	251,700	33	1,209,397	2,712,044	10,982,286	13,694,312
존슨 (Johnson)	528,749	147,437	381,312	47,863	3	183,075	612,247	2,010,155	2,622,402
닉슨 (Nixon)	555,645	163,793	391,852	2,029	1	20,583	414,463	520,288	934,751
포드 (Ford)	632,850	431,088	201,842	23,802	-	104,621	330,265	1,113,650	1,443,916
카터 (Carter)	497,727	422,600	75,127	6,289	0	31,330	112,745	600,807	713,552
레이건 (Reagan)	1,633,173	644,080	989,094	96,932	9	423,026	1,509,042	4,164,252	5,673,294
부시 I (Bush I)	387,549	172,260	215,289	28,522	6,996	133,894	370,708	1,291,984	1,661,692
클린턴 (Clinton)	350,830	8,877	341,953	107,096	-	483,136	932,185	4,596,025	5,528,209
부시 II (Bush II)	896,887	103,404	793,482	218,076	48,299	888,905	1,852,164	8,936,667	10,788,832
기타	2,985	-	2,985	1,897	-	-	4,882	(1,897)	2,985
총계	12,957,163	7,720,873	5,236,290	927,999	2,798	4,116,259	10,277,750	41,435,716	51,713,465

이 표에 의하면 13개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수익은 개별 기록관의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고 약 1천만 달러 정도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할 경우 약 5,200

만 달러 정도이다. 이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기관은 케네디 270만 달러, 부시Ⅱ 185만 달러, 레이건 150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입원은 기념품 판매, 박물관 입장료 등인데 대부분 기록관의 입장료는 8~10달러이다.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 기념품 상점은 대부분 기록관에 존재하며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지하에 별도로 고급 식당을 마련하는 등 수익률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지출은 기념품 대금, NARA 직원을 제외한 시설관리 직원 등의 임금이다.

2) 재단 지원금

NARA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운영수익만으로는 각 기록관별 혁신적인 공공프로그램 및 교육, 정보프로그램들을 위한 폭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중요한 공공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재단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금 모금을 수행하는데, 연간 회비 회원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민간의 기부금 모금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재단의 최고 운영자(CEO)는 대부분 기금 모금 전문가 등이 맡고 있다.

부시 대통령기록관부터 그 이후에 건립된 대통령기록관은 시설운영 비용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NARA에 건립기금에 준하는 운영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기부는 NARA에 제공되고, 시설 유지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사용된다. 최초 부시(I) 대통령 때에는 건립비용의 20%였는데 클린턴과 부시(Ⅱ) 대통령은 40%, 오바마 대통령은 60%를 운영자금으로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부시(Ⅱ) 대통령은 약 5억달러의 기부금을 추가로 모금하기도 하였다. 이 운영기부금이 정부에 들어가면 정부에서는 이 돈을 종자돈으로 창출되는 수익, 예를 들면 이자 또는 투자 수익 등을 가지고 해당 대통령 기록관의 시설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게 된다.

나.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인력 구조 및 역할

1) 대통령기록관의 인력 현황

2013년 기준 미국 국립기록보존관리처 대통령기록관국 소속 직원은 총 479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NARA 본부인

Washington DC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7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9년간 대통령기록관국 소속 직원의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NARA 본부 근무자는 120명이 줄었으나 개별 대통령기록관 근무자는 97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NARA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통령기록관국 인력 배치 현황⁷⁾ >

연도	NARA 본부			개별 대통령기록관			계		
	정규직	기타	계	정규직	기타	계	정규직	기타	계
2013년	27	-	27	372	80	452	399	80	479
2012년	29	1	30	380	84	464	409	85	494
2011년	30	2	32	393	82	475	423	84	507
2010년	74	14	88	365	99	464	439	113	552
2009년	68	15	83	334	81	415	402	96	498
2008년	79	11	90	305	79	384	384	90	474
2007년	130	5	135	284	80	364	414	85	499
2006년	130	5	135	284	80	364	414	85	499
2005년	139	8	147	281	74	355	420	82	502

지난 9년간 NARA 본부 근무자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근무자가 증가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제반 정책기능이 약해졌다고보다 실질적인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중요도와 기능 확대에 의한 인력 증가로 볼 수 있다. 즉, 1940년 이후 성숙단계로 들어선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정책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중심의 보존과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아카이브 영역의 인력뿐만 아니라, 전시·교육·아웃리치·구술사·연구지원 프로그램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대부분의 기록관에서는 NARA소속 직원들을 포함해 약 80~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에서 NARA 소속 외에도 시설관리 직, 청원경찰, 자원봉사자, 기록관리 업무 지원 인력 등이 존재한다.

2017년 현재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NARA소속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NARA,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FY 2005 - FY 2013

< 개별 대통령기록관 NARA 직원 현황 >

대통령기록관	NARA 직원	대통령기록관	NARA직원
후버(Hoover)	18	포드(Ford)	24
루즈벨트(Roosevelt)	26	카터(Carter)	25
트루먼(Truman)	25	레이건(Reagan)	29
아이젠하워(Eisenhower)	33	부시 I (Bush I)	28
케네디(Kennedy)	33	클린턴(Clinton)	33
존슨(Johnson)	23	부시II(Bush II)	31
닉슨(Nixon)	27	오바마(Obama)	13
계	368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NARA직원 현황은 평균 약 26명 정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개별대통령 미건립 결정에 따라 직원이 13명 정도에 그치면서 2013년의 정규직 평균 28명 보다도 줄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역할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아키비스트(Archivist)로 공공, 역사기록물에 대한 수집, 정리, 기술, 보존, 출판, 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NARA 소속 아키비스트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일한다.

두 번째는 아카이브 전문가(Archives specialists)로 불리는 사람들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수집기록물을 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특정 기록물의 기술 및 보존업무, 관련 기록물의 정보공개 대응 등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아카이브 테크니션(Archives techniques)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수집, 정리, 기술, 보존, 활용,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이다. 주로 서고에서 기록물 보존 복원 업무를 전담하거나 시청각기록물 서고에서 시청각 기록물을 담당하기도 한다. 박물관 관련으로 박물관 큐레이터, 공공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아웃리치 전문가, IT전문가 등이 대통령기록관 내외부의 시설관리, 청원경찰 등도 근무한

다. 인턴 및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학생이나 직업적 경험을 얻기 위한 사람,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인력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인턴들은 주로 기록관리업무 직원을 보조한다. 아키비스트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소장 기록물을 정리하거나, 보존서고 배치, 목록과 색인도구 작성 등을 하기도 하고 견학,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록물의 열람신청 확인, 우편배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는 범죄나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면 주로 전시설명, 시설 안내, 방문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순환보직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2~3가지 업무를 장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록물에 대한 이해도와 자기 전문성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다는데 있다.

Ⅲ. 미국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활용 현황

1. 대통령기록물 관리 주요 현황

가. 전자기록관리시스템(Electronic Records Archives, ERA) 현황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부터 전자기록물이 생산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클린턴 시기를 지나 부시(II) 대통령 시기에는 약 77테라바이트,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약 250테라바이트의 전자기록물이 생산되는 등 그 수량이 급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전자기록관리시스템(Electronic Records Archives, ERA)을 개발하였다.

ERA의 개발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불과 10년 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H/W 및 S/W 구형화 문제 발생)되면서, 전자문서, 동영상, 사진필름, 웹기록, 행정정보데이터셋, 음성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록물 생산과 저장매체 출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되었다. ERA는 NARA의 전자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종이기록물과는 다른 기록물들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관리하는 한편, 모든 연방기록물의 처분일정표(Retention Schedule) 및 수집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 시스템이다. 즉, ERA는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미국 정부기록 및 역사자료들을 이관, 보존 하기 위한 생애주기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RA구축 시스템의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ERA구축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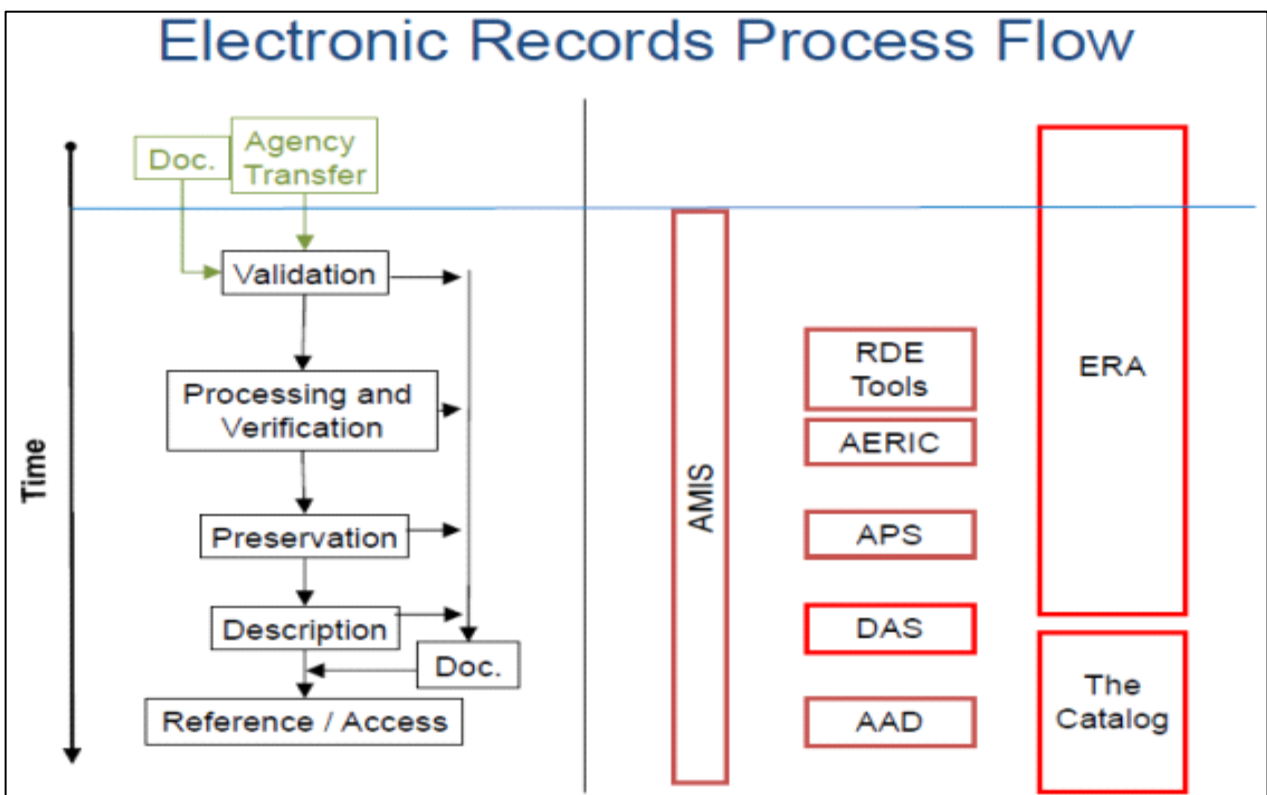
연도	내용
1965	초기 전자기록물 형태에 대한 수집·보존·열람체계 준비
1969	전자기록물 최초 이관(미국 연방기관 → NARA)
1989	DB, ASCII 등의 6,000개 데이터셋 이관(APS, AERIC) * APS(Archival Preservation System) * AERIC(Archival Electronic Records Inspection and Control system)
1993	대통령 전자기록물(e-mail 포함) 최초 이관
1998	대용량 전자기록물 이관에 대비한 기술능력 예비조사 착수
2000	ERA 프로그램 관리조직(PMO) 신설 *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2004~2005	ERA 시스템 개발자 선정, 전자기록 자문위원회 설치
2007~2008	연방 4개 기관 시범적용 및 초기 운용성 분석 * 4개 시범기관(미국 특허청, 국가핵안보국, 노동통계국, 해군사무소)
2009~2011	개발 최종단계(ERA 2차 모듈 개발 완료)
2012	모든 연방 정부기관 ERA 시스템 적용
2017	ERA 2.0(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시험)
~2018	ERA 2.0 서비스 적용

ERA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기록물 관리 수행을 위한 주요 기능으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스케줄링 과정(평가,생산,스케줄 승인) 조정, 모든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저장 및 검색, 전자기록물의 처리 및 저장,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포맷변환 결과물 입수, 사전 합의된 처분일정에 따라 전자기록물 처분, 전자기록물의 접근성과 배포성에 대한 제한 처분 가능, 접근제한기록물과 상급 비밀로 분류된 민감기록물 저장 가능, 전자기록물의 자동화된 영구보존처리 과정을 위한 기능, ERA 및 다른 물리적 매체를 통해 입수된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기록집합을 위한 설명정보(메타데이터)의 유효성 확인,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 전자기록물의 접근성과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변환 기능, 입수된 기록물의 검색, 조사, 출력 기능 등이 있다.

각급 기관에서 ERA의 사용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1단계) 기관내 ERA 계정관리자 임명
 - . 각급 기관 기록물담당자 → ERA 계정관리자에게 신상정보 제공
- (2단계) ERA 사용 역할 결정
 - . 각급 기관 기록물 스케줄러(Records scheduler) NARA에 제출
 - . 전자적 이관처리(전자파일 패키징) 승인 요청
- (3단계) ERA 사용자 교육훈련
 - . ERA 계정 승인 전, 사이버교육(ERA E-Learning) 이수 필수
- (4단계) ERA 사용자 계정 요청서 제출
 - . 각 사용자가 온라인 계정요청서 작성·제출 → 관리자 승인

< 전자기록물 처리 절차 업무 흐름도⁸⁾ >



위의 업무흐름절차에서 활용된 전자기록물 관리도구(RDE Tools)로는 AMIS, AERIC, APS, DAS, AAD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8) The Electronic Records Division, RDE(전자기록관리과)

- ① AMIS(Accession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전자기록물 인수관리정보시스템(인수흐름 추적, 상태보고서 관리)
 - ② AERIC(Archival Electronic Records Inspection and Control utility)
: 영구보존기록물 검사통제 도구(데이터 무결성·유효성 검증)
 - ③ APS(Archival Preservation System)
: 영구보존처리시스템(테이프 기반의 분류기록물 보존처리)
 - ④ DAS(Description Authority Service)
: 기술관리서비스(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관리)
 - ⑤ AAD(Access to Archival Database)
: 영구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접근(열람)시스템
- * 기록물 시리즈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검색가능(30개 기관, 63 series)

ERA의 실제 구동 사례 중 이관관련 업무절차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eneral Information Tab
---	-------------------------

각급 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을 ERA를 통해 이관할 경우, 제일 먼저 General Information Tab 부분에 기록물 이관요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들을 입력해야 한다.

○(필수 입력사항) : 처분기관 고유번호, 생산기관명, 레코드그룹명, 생산부서명, 처분권한, 접근제한, 이용제한, 기록물유형 등

9) NARA, 2013, Transferring Permanent Records to NARA Using ERA: Cross-walking the ERA Transfer Request to the SF 258

2

Transfer Detailed

Save View PDF Cancel -- Select Next Action -- Go Delete

* = Required field

General Information **Transfer Details** Contact Information Related Assets Attachments

Transfer Details

Transfer Group Description: Federal Assistance Awards Data System (FAADS), FY 99 View

Cutoff: * Transfer Group Disposition Date: 7/22/2011

Current Physical Location of Records

Agency Location: Yes

Agency Name and Address: Census Bureau Edit Spell check

Destination Physical Location of Records

Location: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 Archives II (College Park, MD)

Destination Custodial Unit: NWMME - Electronic and Special Media Records Services Division

* Transfer Method

두 번째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이관과 관련된 세부 방법들이다.

- (필수 입력사항) : 이관 그룹명 기술, 처분일자, 이관대상 파일들의 물리적 위치, 이관방법(이관수단, 미디어 형태, 수량, 이관용기 등)

3

Contact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Transfer Details **Contact Information** Related Assets Attachments

* = Required field

Transferring Agency Official

First Name: Artina Last Name: Venning
 Title: Records Officer Phone: 301-123-4567
 Email: artv@census.gov Agency: Census

Agency Approving Official

First Name: Last Name:
 Title: Phone:
 Email: Agency:

IIARA Contact

First Name: Last Name:
 Title: Phone:
 Email: Agency:

Other Contacts (Agency IIARA)

Add Delete

First Name	Last Name	Title	Phone	Email	Agency
SF 258 (Block 5E)					

세 번째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현황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 (필수 입력사항) : 생산기관 담당자, 이관처리 승인자, NARA 담당자들의 현황정보(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 Required field

General Information | Transfer Details | Contact Information | Related Assets | **Attachments**

Add an Attachment

File Name:

File Description:

Click "Browse" →

Click "Upload" →

List of Attachments

Attachment (ATT) 1 thru 1 of 1

Delete Selected Attachments

<< first < prev 1 next > last >>

Attachment File Name	Attachment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TR_0029_2011_0145.docx	

NOTE: Attachments should include the Transfer Request number in the file name.

마지막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이관과 관련된 첨부파일들을 입력하는 일이다.
 ○ (필수 입력사항) : 파일명, 파일내용 기술

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현황

2016 9월 30일 기준 대략 문서류와 문서류가 아닌 소장물 27만 평방피트의 약 88%인 24만 평방피트의 대통령 기록물이 현재 공개 처리 중에 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들의 공개 비율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오래된 기록관들(후버, 루즈벨트, 트루먼)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90% 이상 공개하고 있으며, 중간 정도의 도서관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50% 이상을 가장 최근의 도서관들(레이건, 부시 등)은 50% 미만으로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Online Public Access(OPA) 포털의 일부인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각 기록관은 디지털화된 자료들 뿐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관련된 정보(검색 도구 및 소장기록물 가이드 포함)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 웹사이트를 운영, 공개기록물들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후 5년동안 접근이 불가능하며, 대통령은 12년 까지는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법은 또한 의회, 법원, 차기 행정부가 공공에게 비공개된 기록물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 대통령 박물관의 전시 구성방식

박물관의 전시 구성은 그 전시로 인해 만들어지는 재정자원에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 재단(민간, 비영리 지원 조직)은 대통령기록관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조성하며, 각 기록관들의 주요 전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다. 부시(I), 클린턴, 부시(II) 그리고 모든 미래의 대통령기록관들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NARA에 기부해야 하고, 서고에 대한 환경과 보안요건을 충족하도록 운영하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와 박물관, 각종 프로그램, 행정적인 운영을 담당할 전문적인 직원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업방식은 대통령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와 문화적인 주제, 대통령의 삶과 재임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전시와 프로그램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시주제가 그 전시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라.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

대통령 도서관은 특정 대통령이 살아온 기간뿐만 아니라 그의 행정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과 그의 생애와 직업에 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기록들에는 대통령 개인과 전문가로서의 삶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가족, 지인, 사업이나 정치적 관련자들과 관련된 기록도 포함되어 있으며, 백악관에서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대통령의 커리어, 개인적인 삶 등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도서관은 백악관 생활 이전, 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수백만 사진들 뿐만 아니라 수천 피트의 활동사진 필름과 비디오테이프도 소장하고 있다. 이 풍부한 시청각 자료들은 홈 무비와 공식적인 백악관의 사진들 그리고 대통령의 대화를 수록한 오디오테이프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대통령기록관들은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생산된 전자기록물과 외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과 유년시절 기증품, 대통령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행정 박물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마. 재임중 대통령 기록물의 처분 등 관리

대통령기록법은 재임중인 대통령 기록에 대한 기록관리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개인적인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에서 분리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비록 NARA가 재임중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하더라도, NARA는 제도적인 지식과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기록관리 가이드를

제공해왔다.

대통령기록법은 재임중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처분하려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NARA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한은 일상적으로 접수되는 아주 많은 양의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공적인 문서를 처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NARA의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된 처분에 대해 의회에 알려야만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 최소 60일의 법적 소요기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NARA의 청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 접근제한(지정)기록물 관리

접근제한 기록물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최대 12년까지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접근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어느 때라도 접근제한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임기종료 직전 시리즈별로 지정한다. 전직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한 대리인은 모든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갖고 또한 회고록 또는 자서전 집필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 2014년 개정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무단 유출, 파기 등 기록물 관리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는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재판 시 법원에 제공되며, 현직 대통령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가 없을 때, 미국 의회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제공이 가능하다.

201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에 따라 NARA는 현재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 기록물이 해제될 경우, 전직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요청에 대해 백악관 법률고문 사무처와 그 기록물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대리인단에게 고지한다. 이 고지의 목적은 법률고문에게 대통령 또는 부통령 기록물의 배포 또는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록 이 기록물들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은 이 기록물들이 배포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월 20일에 대통령 기록물은 자동적으로 NARA의 법적 보존시설로 이관되며, 최종적으로는 NARA에 의해 관리되는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된다. NARA는 이 기록물들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기록물의 보존, 검토, 정리, 기술,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NARA는 제공이 가능한 전직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외부에서 접근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과 재임 대통령에게 고지하며, 법무부의 법률고문 사무처에게도 고

지한 사본을 제공한다. 재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에 의한 검토 절차는 NARA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 현직 대통령이 공개여부에 대해 반대일 경우 공개는 유보 되는데 이때 소송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전, 현직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우선하나, 전직 대통령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동안 처리결과를 유보해야 한다.

2. 대통령기록관 이용 현황

가. 대통령기록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각종 전시나 강연, 연구지원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의 말과 행동을 통해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존하고, 해석하고, 보여준다. 대통령기록관은 매년 수백만의 연구자, 학생, 방문자에게 조사연구실과 대화형 박물관, 교육센터를 제공하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공공 기록보존기관이다.”¹⁰⁾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공과를 가치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 함양과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이용 현황

1) 대통령기록 이용 현황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방문자는 1인당 약 100~200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며 200만 명의 연구자와 방문자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2억~4억 달러에 달한다.¹¹⁾ 2016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전시와 박물관 방문자 수는 208만 3,647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열람한 연구자는 10,277명, 서신 문의는 22,519명, 공공 프

10) David S. Ferriero, 미국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대통령기록관: 사명과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청문회, 미국국립기록보존관리처 처장 증언, 2011.2.28.; 기록경영리서치&서비스, 대통령기록물관리 선진화연구: 대통령기록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p. 16에서 재인용.

11) 기록경영리서치&서비스, 대통령기록물관리 선진화연구: 대통령기록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p. 17에서 재인용.

로그램 참가자수는 59만 1,851명이다. 참고로 미국 국립기록보존관리처 소속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이용 및 방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이용 및 방문 현황¹²⁾ >

대통령	기록열람	서신문의	프로그램참가	박물관 방문	온라인 방문
후버	379	860	17,862	37,374	500,000
루즈벨트	1,024	1,868	41,447	192,783	900,000
트루먼	679	2,528	35,308	73,478	1,400,000
아이젠하워	1,389	3,169	33,766	169,740	400,000
케네디	1,182	5,676	30,273	218,694	40,000,000
존슨	1,534	1,977	27,389	154,238	2,100,000
닉슨	1,152	1,488	4,295	44,018	200,000
포드	637	514	10,465	237,893	700,000
카터	699	492	7,392	71,488	900,000
레이건	812	544	73,517	432,308	800,000
부시(I)	434	1,823	225,720	149,489	200,000
클린턴	202	1,374	77,235	91,155	500,000
부시(II)	154	206	7,182	210,989	1,600,000
계	10,277	22,519	591,851	2,083,647	50,200,000

특히 닉슨, 포드, 카터, 부시(II)를 제외한 대통령기록관들의 공공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NARA 본부인 Washington DC의 참가자(15,015명 참여, '16년 기준)¹³⁾보다 많은 것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적 임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점으로 볼 수 있다.

2) 웹사이트 이용 현황

2016년 기준 NARA의 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웹사이트(Our Docummnets.gov) 방문자는 300만 명이며,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 방문자는 5,020만 명에 달한다.

향후 NARA 및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년간 미국 국립기록보존관리처와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 이용

12) NARA, FY 2018 Annual Performance Plan and FY 2016 Annual Performance Report, p. 14.

13) NARA, FY 2018 Annual Performance Plan and FY 2016 Annual Performance Report, p. 14.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국립기록보존관리처 및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이용 현황¹⁴⁾ >

연도	NARA		대통령기록관
	Archives.gov	Our Documnets.gov	
2016년	30,800,000	3,000,000	50,200,000
2015년	-	-	31,700,000
2013년	29,351,833	2,631,466	17,619,334
2012년	25,895,021	2,280,657	15,951,934
2011년	17,340,754	1,569,277	14,690,318
2010년	18,704,747	1,192,183	19,139,377

특히 2016년부터는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NARA 웹사이트 방문자 수보다 1,940만 명이 더 많은 것은 주목할 점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장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들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문화시설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대부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용자에게 전시된 내용을 설명해주는 소극적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연령과 주제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보다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몇 가지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모든 연령의 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국의 역사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

14) NARA,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FY 2005 - FY 2013

고 있다. NARA에서 소개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프로그램 현황¹⁵⁾ >

프로그램	내 용
백악관 상황실 체험 (레이건·조지W.부시 대통령 기록관)	<p>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외교정책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며 국제적 위기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p> <p>·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은 2017년 미국박물관연맹 회의에서 동 교육프로그램으로 게임 및 증강현실 부문에서 실버 뮤즈 상*을 수상</p> <p>* 미술관·도서관·기록관·박물관(GLAM) 분야에 미디어 및 기술을 적용한 우수 프로그램에 수여</p>
대통령에게 조언하다	<p>교사가 역사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학생들이 과거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결해보는 프로그램</p> <p>·(트루먼) 소련이 제기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p> <p>·(아이젠하워) 미국이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확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p> <p>·(포드)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금융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p> <p>·(레이건)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p> <p>·(클린턴) 코소보위기에 대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p>
대통령 타임라인	모든 대통령기록관의 오디오, 비디오, 문서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C-SPAN 시리즈 교육 자료	<p>대통령기록관과 National Archives와의 협력사례로 1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임. 2007년부터 공개되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중 필름 영상, 대통령 가족 영상, 녹음 자료, 기타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용 자료로 제작</p> <p>·(후버)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문서 자료, 편지, 신문 스크랩, 전보 및 사진 등의 역사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소개</p>


15) <https://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programs/education.html> (cited, 2018.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루먼) 백악관에서의 삶과 농사와 결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소개 ·(아이젠하워) 1890년대부터 1969년까지의 삶과 어린 시절, 결혼 등을 소개 ·(케네디)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존슨) 집무실에 왜 3개의 TV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어린이 프로그램 ·(닉슨) 문서, 사진 및 오디오파일 등을 활용하여 닉슨의 중국 방문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 ·(포드) 스크랩북을 통해 하원 의원, 부통령, 대통령으로 취임한 포드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 ·(카더) 캠프 데이비드 협약 25주년 기념을 위한 역사자료, 회의내용과 카더 행정부의 활동범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문서 소개 ·(레이건) 레이건의 연설문 초안, 연설문 및 분석자료, 정상회의에서의 레이건의 메모, 대통령의 편지 등을 소개
<p style="text-align: center;">백악관 회의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p>	<p>대통령과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 역사적 결정 상황을 재현하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일본의 패전, 1948년 3군에서의 인종차별 폐지, 1948년 러시아의 베를린 봉쇄, 1950년 북한의 남한 침공, 1947년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문그룹에 속하여 미국의 대응방안을 마련 ·대상은 6~12학년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9만 명의 학생이 참여
<p style="text-align: center;">오성급 지도자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p>	<p>8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위기관리 등 임무 수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집무실 캐비닛룸 (포드 대통령기록관)</p>	<p>학생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포드 행정부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백악관'웨스트 윙'에 위치한 각료회의실'캐비닛룸'에서 다양한 문서와 더불어 롤플레이밍으로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p>	<p>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문서를 활용하여 대통령이 직면한 난제를 체험하고 롤플레이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p>

IV. 개별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

1. 트루먼 대통령기록관(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가.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연도) 1957년 - (건립예산) 1,670,000 달러 - (건립규모) 96,612 평방피트 - (증축연도) 1968년과 198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증축 - (회의실 및 박물관 직원 사무공간 및 컬렉션 보존공간 확보) - (공간구성) 서고, 연구실, 직원 사무실, 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창고 - (특이사항) 트루먼이 실제로 직접 이용한 사무실 있음
--	--

1955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법이 처음으로 건립된 기록관으로, 약 1,670,000 달러에 달하는 기록관 건물은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건립법인(Harry S. Truman Library Inc.)에 의해 지어졌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은 1957년 7월 6일에 개최된 헌정식에서 정부로 이관되었다. 기록관은 트루먼대통령의 고향인 미주리주(Missouri) 인디펜던스(Independence)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8년과 1980년에 각각 310,000 달러와 2,800,000 달러의 비용을 들여 증축하였다. 날개건물을 증축하고 박물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였다. 증축된 날개건물의 1층에는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추었고 지하에는 박물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컬렉션 보존소를 마련하였다.

< 트루먼대통령기록관 평면도16) >



- ① 중앙로비
 - 495평방피트의 인디언 관련 벽걸이 그림이 있음
 - 전시개요 설명 및 연회 장소로 사용
- ② 강당
 - 회의진행 및 교육 세미나 등이 가능한 회의
 - 중앙로비와 강당 사이 기념품점 설치
- ③ 유산 갤러리(The Legacy Gallery)
 -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이 있음
 - 6.25전쟁 관련 미술품 등도 전시
- ④ 대통령 재임시절(Presidential Years)
 - 상설전시공간으로 백악관 시절 전시
- ⑤ 트루먼의 생애(His Life & Times)
 - 지하층 상설전시 공간
 - 트루먼의 전 생애를 전시
- ⑥ 기획전시(Special Exhibitions)
 - 지하층 기획전시 공간
- ⑦ 백악관 회의실(White House Decision Center)
 - 교육 프로그램 공간
- ⑧ 접근제한 공간(Not for Public Use)
 - 일반적인 접근제한 공간
 - 사무실, 서고 등 업무공간, 연구자 등을 위한 열람실(*열람신청자 이용 가능)
 -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관람 가능)

1982년 영부인 베스 트루먼(Bess Truman) 여사가 사망하고 난 후, 딸 마거릿(Margaret)이 트루먼 가족의 기록물을 기증하였다. 대부분의 기록물은 트루먼이 1910년에서 1959년 사이 영부인에게 보낸 1,350여장의 편지였다. 이 편지 컬렉션은 1982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1994년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기록관을 리뉴얼할 수 있었다. 8,000평방피트의 '대통령 갤러리(Presidential Gallery)'와 2,000평방피트의 '백악관 갤러리(White House Gallery)'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역사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레지던트(PRESIDENT)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건물 내부는 매뉴스크립트·도서·시청각자료용 서고와 연구실, 직원 사무실, 강

16) 국가기록원, 2007,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재인용

당, 세미나실, 박물관전시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뜰에는 대통령 내외가 안장되어 있다.

공공 프로그램으로는 연구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원하는 활동, 학교수업이나 교육그룹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내 박물관 투어를 지도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나. 인력 및 재원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75명이다. 이중 연방정부직원은 25명이다. 안전요원, 정원관리 등은 운영요원과 인턴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턴, 자원봉사자 등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 어렵다. 인턴과 자원봉사자는 기록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NARA 소속 직원 현황 >

이름	업무	이름	업무
Donald	관장	Mark	교육 스페셜리스트
Amy	부관장	Angela	교육 스페셜리스트
Samuel	아키비스트 책임자	Clay	박물관 큐레이터
Pamela	행정책임자	Stephanie	박물관 큐레이터
Tammy	아키비스트	John	박물관 등록업무
David	아키비스트 및 인턴담당	Jennifer	공공프로그램 책임자
James	아카이브 스페셜리스트	Richard	기념품점
Janice	아카이브테크니션	Marcia	기념품점
Randy	아카이브테크니션	Jordan	기념품점
Laurie	시청각기록물 담당	Kathy	이벤트 담당
Hector	시청각기록물 담당	Anita	방문객 담당
Bridget	-	Michael	방문객 담당
		Jordan	시설관리자

위 표에 의하면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NARA 직원들은 관장, 부관장, 행정 책임자, 아키비스트 책임자 등 관리직 4명과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스페셜리스

트, 아카이브 테크니션, 시청가기록물 담당, 시설관리자 등 8명의 전통적인 기록 관리 담당자 외에 교육 전문가 2명, 박물관 큐레이터 2명, 박물관 등록업무, 공공프로그램 책임자, 기념품점 3명, 이벤트, 방문객 담당 등 11명이 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용 및 고객 서비스의 중용성이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모든 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으나 개별 기록관마다 재원조달 방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 기념품점이나 카페 운영 또는 입장료 수익 등이다.(연 방문객 수 8만명~20만명, 입장료 8달러) 연구목적 방문, 일과시간 이후는 무료이다. 성인정가는 8달러, 시니어 7달러, 5세 이하 무료 등 연령에 따라 또는 그룹 할인 등 입장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재구성한 이후에는 입장료를 올릴 예정이다

다. 소장 기록물 및 열람지원 서비스

핵심 소장 기록물은 트루먼 대통령기록물 컬렉션으로, 트루먼 행정부 시절 백악관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트루먼이 농부, 군인, 사업가, 시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및 대통령이었던 시절의 기록물 등 그의 생애와 일에 관한 다양한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원사료와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1961년에 구술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연방정부 직원 역할 중에는 정보공개도 있는데, 정보공개법을 기본으로 NARA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담당자들도 재량에 의해 처리가능하다. 개인기록은 영구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소장기록물의 이용을 위하여 트루먼기록관에서는 주제 가이드, 공개 기록물 안내, 보도 자료 및 가계도, 대통령 일정, 기증자료 안내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 기록 정보 및 원문, 주제별 온라인 기록정보 및 원문, 인명 및 조직 기록색인, 구술기록 색인 및 녹취록, 키워드 검색, 접근정보 및 열람실 이용안내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 하고 있다.

라. 전시구성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트루먼 대통령 행정부의 역사와 업적은 물론 트루먼의 일생에 대한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1) 상설전시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대통령 임기 중 백악관의 집무실을 재현한, 복제 집무실 전시가 있다. 대통령 재임 시의 미국, 대통령 재임 시의 국제정세 등을 전시하고 있다.

대통령 시절(The Presidential Years) : 트루먼 대통령 임기 동안의 주요 사건을 100,500 평방피트의 공간에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전시는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중시하는 전시라기보다는, 전쟁, 원폭투하, 냉전, 맥아더, 미국경제의 급변화 양상 등 시대상을 보여주는 전시이며, 시대상 속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등을 담은 기록물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원폭투하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을 설명하고 관람객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영상관을 통하여 관람객 스스로가 역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지하에서는 대통령의 일대기와 어린 시절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의 생애(His Life and Times) :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생애를 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설전시로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2) 기획전시

대통령의 보물(Treasures of the Presidents)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건립 50주년 기념전시이자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망라한 전시로서, 미국 내 대통령기록관의 다양한 컬렉션 중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200점 이상의 물품을 전시중이다. 조지 워싱턴의 이동식 책상에서부터 링컨의 권총, 히로시마 원폭투하 전에 당겨진 플러그, 힐러리 클린턴이 취임식에서 입었던 가운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및 박물을 전시하고 있다.

마. 교육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트루먼의 트렁크(Truman Footlocker) : 트루먼 대통령의 유물과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트루먼 트렁크의 소품은, 트루먼 대통령의 생애와 대통령직 수행과정을 탐구하는 데,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사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안경,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 사인, 일기, 그리고 “듀이, 트루먼을 위협하다(Dewey Defeats Truman!)”와 같은 신문기사는 트루먼 대통령의 집권 초기나 정치적 업적 및 역사적 공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

초등학생 대상 : 학생들에게 트루먼의 생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트루먼의 성격과 헌신성을 강조한다. 커리큘럼 가이드, 비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학생 대상 : 트루먼의 초기 생애와 가족에 대한 연대기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대통령 직과 유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상 : 트루먼의 정치적인 업적, 대통령의 결정, 유산 등에 대해 탐구

한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백악관 회의실(White House Decision Center)’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역사의 날(National History Day)’,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단체 견학(Museum Group Tours)’, 트루먼 대통령과 관계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비디오 대여(Video Loans)’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프로그램 현황¹⁷⁾>

프로그램	내 용
역사의 날 (National History Day)	‘위대한 캔자스시티(the Great Kansas City, Missouri)’ 지역의 역사의 날 행사에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6~12학으로 트루먼 대통령이나 캔자스시티와 관련된 전시, 다큐멘터리, 공연, 연구논문 중 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음
트루먼 트렁크 (Truman Footlocker)	1차 세계대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사용했던 병사용 트렁크 복제품에 트루먼 대통령 관련 스크랩북, 그림, 신문, 박물관, 의류, 사진, 정치만평 등의 자료와 교사용 가이드를 함께 담아 제공하는 교육 자료. 트루먼 트렁크는 제작 또는 구입 및 대여 모두 가능
박물관 단체 견학 (Museum Group Tours)	15명 이상의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설명으로 진행됨. 시설 견학은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되며, 선택사항으로 약 45분의 트루먼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청이 가능
비디오 대여 (Video Loans)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및 성인별로 적합한 비디오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공함 ·트루먼 대통령 생애, 대통령과 백악관 생활, 트루먼 대통령과 사람들, 20세기 사건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역사의 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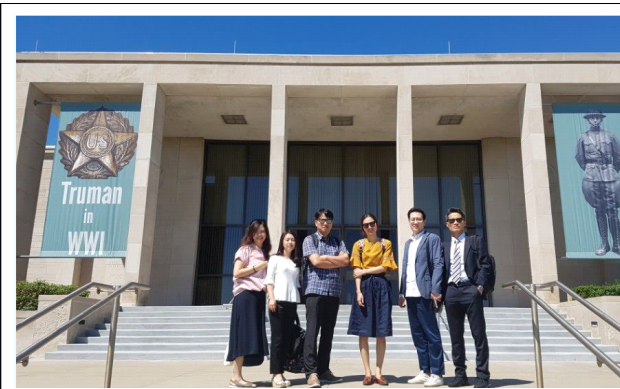
17) <https://www.trumanlibrary.org/educatio.htm> (cited, 2018. 8. 11)

바. 시사점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은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건물을 확장해 왔다. 보존공간 및 시설은 건립 당시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운영과정에서 기념품점, 전시 공간, 교육공간, 강당(auditorium) 등이 점차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확장공사를 하였다. 1단계는 보존 공간 설비, 2단계는 전시 공간 확장, 3단계는 프로그램 공간 확장(강당, 유산 갤러리(The Legacy Gallery)) 이었다. 공공서비스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 프로그램 시설(Public Program Facility)이 많아졌다.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어떤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를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원자 폭탄’과 같이 트루먼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연합군의 승전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강조하였다. 주제 선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 주요 활동 사진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전경



기관 소개 및 인사



운영사례 관련 회의



트루먼대통령 동상



트루먼대통령의 사무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서고



트루먼대통령기록관 열람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꺼지지 않는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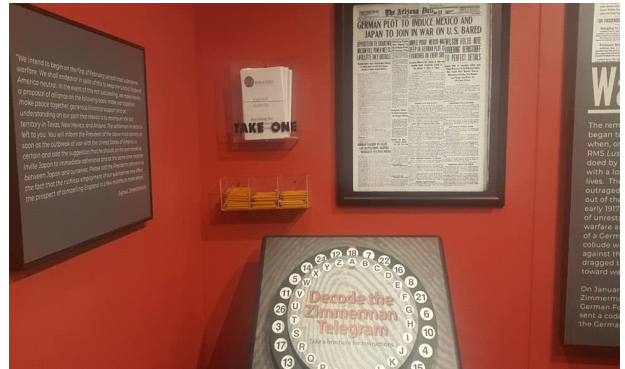
6.25전쟁 관련 조형물



트루먼 대통령의 명구(The Buck Stop Here)




전시관내 한국전쟁 패널



참여형 전시도구(퀴즈)

2. 클린턴 대통령기록관(William J. Cliton Library and Museum)

가.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예산) 2004년, 6,900 평방피트 - (건립비용) 3,600만 달러 소요 - (건립지역) 아칸소주 주도 리틀락 클린턴 센터 내 건립 - (인력규모) 총 100여 명 내외 - (소장기록물) 대통령문서 32,246평방피트, 연방문서 211평방피트, 사진 약 200만장, 클린턴의 색소폰 등 7만5천여 점의 전시품 보유
---	---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업적을 기념하는 클린턴 대통령 기록관은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기록관이다. 이 기록관은 14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역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구비해 놓고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센터는 대통령 기록관과 박물관, 재단본부,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인 1만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1억 6500만 달러의 자금의 일부로 건설되었다.

나. 인력 구성 및 예산

33명은 나라소속 직원이며, 시설직, 관리직, 방호원, 인턴,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운용은 의회지원금과 재단지원금 및 펀드, 기념품점, 레스토랑 운영 수익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 소장 기록물

약 200만장의 사진과 7,600만 쪽에 이르는 서류, 클린턴 대통령이 즐겨 불던 색소폰 등 7만 5천여점의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다.

라. 공간 및 시설

특이한 점은 클린턴이 와서 연구하거나 책을 볼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 전시구성

연도별로 구성된 14개 코너는 평면제작된 패널과 맞은편 행정박물류로 구성되

어 있다. 매해 월별 바인더로 대통령의 타임스케줄을 편철해 두었고, 일자별, 시간대별 일정을 설명해 놓고 있다. 2층에는 백악관 내부 박물관(집기) 및 외국방문시 받은 선물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의 ‘敬天愛人’액자가 주목할 만하다.

바. 교육프로그램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은 클린턴 생애와 경력, 클린턴 행정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20세기 미국의 역사와 대통령제도 및 정치 체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의 직접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를 통한 개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관점으로 역사를 대하는 자세와 개인의 시민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수업 계획, 현장 학습, 기록관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과 전문 워크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문서, 사진 및 비디오 자료 등을 포함한 소장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 소개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의 프로그램 현황¹⁸⁾ >

프로그램	내용
<p>견학 (Tour Programs)</p>	<p>미니 투어(Mini-Presidential Tour)는 대통령 집무실과 백악관 생활 전시, 기획 전시 등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으로 약 45분간 진행. 그 밖에도 파트너십 연계 투어인 ‘Best of Both Worlds Tour’와 ‘학생 대통령기록관 투어(The Student Presidential Tour)’를 운영.</p> <p>·고학년 프로그램으로 투어와 강의를 연계한 ‘아이디어 고민 (Ideas Matter)’, ‘리틀록 나인 사건과 의회황금메달(The Little Rock Nine and the Congressional Gold Med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p>
<p>전시물 기반 학습 (Object-Based Learning Programs)</p>	<p>상설 전시인 ‘백악관에서의 휴일(Holiday at the White House)’ 전과 ‘국가 상징(National Symbols)’전을 통해 다양한 전시물 감상 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임. 전시관 견학과 교실 활동이 포함되며 1시간 15분 정도 소요.</p>

18) <https://www.clintonlibrary.gov/education/educators/education-programs/> (cited, 2018. 8. 11)

<p>상설 전시 교실 (Temporary Exhibit Classroom Programs)</p>	<p>'백악관, 그린 빌딩*(White House, Green Building)'전과'백악관의 미국 공예품 컬렉션(White House Collection of American Crafts)'전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시 예정임을 안내</p> <p>*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린 빌딩'의 연구와 사례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며,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중에 'Greening of the White Hous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백악관을 '그린 빌딩'으로 개수함</p>
--	--

사.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청와대 및 정보공개 분야에서 대통령 및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행동을 알권리로 인식하여 기록으로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 주요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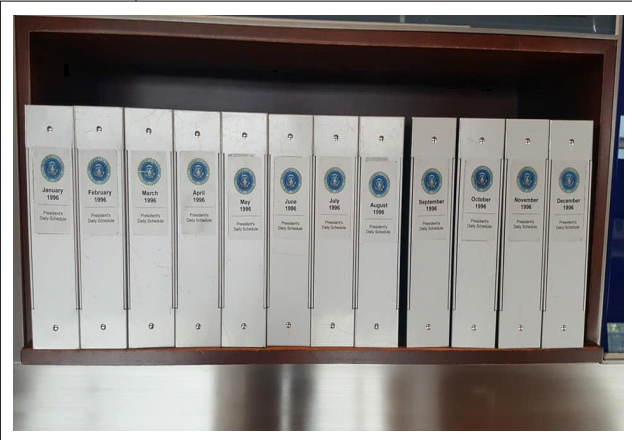
복원된 철교와 42대 대통령을 뜻하는 숫자



클린턴 기록관 소개



소개 및 인사



클린턴 대통령의 타임스케줄 바인더



운영사례 관련 회의



운영사례 관련 회의2



시청각실 출입구



클린턴 대통령 백악관 회의실 재현



클린턴대통령 전시관 패널



2층 구조의 전시관 전경



김대중대통령의 선물



클린턴대통령 자동차 전시품

3. 케네디 대통령기록관(JFK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¹⁹⁾

가.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연도) 1979년- (건립예산) 1,800만 달러- (건립규모) 132,293 평방피트- (공간구성) : 박물관 1층, 기록관 2층 (*건물이 좁고 높아 기록물의 이동 불편): 다양한 포럼 개최- (특이사항) 헤밍웨이 기록물 소장, 최초로 기념품 운영, 재단 활성화, 다양한 포럼 개최
---	---

존 F.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유명한 건축가 페이(I. M. Pei)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전세계 3,600만 명의 개인 기부금으로 건립되어, 1979년 10월 20일에 개관하였다. 이 대통령기록관은 케네디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세워졌다. 기록관이 입지한 곳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며, 오른쪽에 바다를 접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박물관 관람객은 2016년 현재 약 22만 명으로, 48만여 명을 기록한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온라인 열람 방문자 수는 약 4,000만 명으로 다른 기록관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나. 인력 구성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는 총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NARA 소속 직원은 33명이며 운영수익에 의한 인력, 인턴,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소장 기록물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840만장에 이르는 케네디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과 국회 및 대통령 재임 당시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케네디 행정부와 20세기 중반 미국 역사에 관련된 300명 이상의 인물에 관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에 관한 상당량의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그가 남긴 원고와 서신 가운데 전체의 95%에 해당하

19)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운영의 한 사례로 자료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방문지는 아님

는 분량이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만 장의 사진, 7천 시간 분량의 오디오 기록, 7만 권의 인쇄물, 800만 피트에 달하는 필름도 소장되어 있다.

라. 공간 및 시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9층 건물인데,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성조기 형상의 대형 기념물(monument)이 설치되어 있다. 로비 층에 기획전시실, 영상실, 카페, 기념품점, 회의실, 교육실, 다용도 공간 등이 있고, 지하에 전시실과 대형 중앙홀(atrium) 공간이 있다. 기록관의 상부층은 서고층이며 6층에 자료열람실과 헤밍웨이 자료실이 있다

마. 전시구성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록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케네디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전시는 기록물을 활용하는 전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까지의 삶은 영상자료로 전시하고 있고, 취임 이후 시기는 사진, 포스터, 편지 등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모두 기록관의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전시실 구성: 22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①소개 영화 ②전당대회 ③1960년 선거운동의 발자취 ④선거운동 사무소 ⑤케네디·닉슨 논쟁 ⑥선거 결과 ⑦대통령 취임식 ⑧백악관 복도 브리핑실 ⑨평화 ⑩봉사단 ⑪공문서 ⑫쿠바 미사일 위기 ⑬우주개발 계획 ⑭기념일 및 국가 행사 ⑮ 법무장관 집무실 ⑯대통령 집무실 ⑰영부인 ⑱케네디 일가 ⑲정신 지체 (Mental Retardation) ⑳암살 ㉑유산 ㉒용기 있는 사람들 시상식(Profile in Courage Award)

바. 교육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담당 전문 인력이 장기간 근속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 노하우가 프로그램에 충분히 활용되는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준다. 교육담당자로부터 넘치는 애정과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지속되어야 문화기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 특별 이벤트

용기 있는 사람들 시상식(Profile in Courage Award) :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재단에서는, 1957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한 케네디의 저서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정의된 정치적 용기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뉴 프론티어 시상식(New Frontier Award) : 선거운동 사무소, 사회 서비스 등

에 기여하거나 케네디 대통령이 중시했던 민주주의와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지지하는 40세 이하의 미국인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 기타 서비스

보스턴을 비롯한 메사추세츠주 인근 지역 도서관들과 연계한 박물관 패스(Museum Pass) 프로그램과 보스턴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위한 도시 패스(City Pa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도서관에서 패스를 미리 신청하면 1개 패스에 4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박물관 패스와 도시 패스를 연계하면 약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시 수화 전문가가 전담하여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모든 동영상 필름에는 청력이 약한 이용자를 위하여 스크립트가 함께 제공된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등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자.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시사점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상징 건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이 빼어나고, 입지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어 주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바다 옆에 건물이 좁고 높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습도 문제도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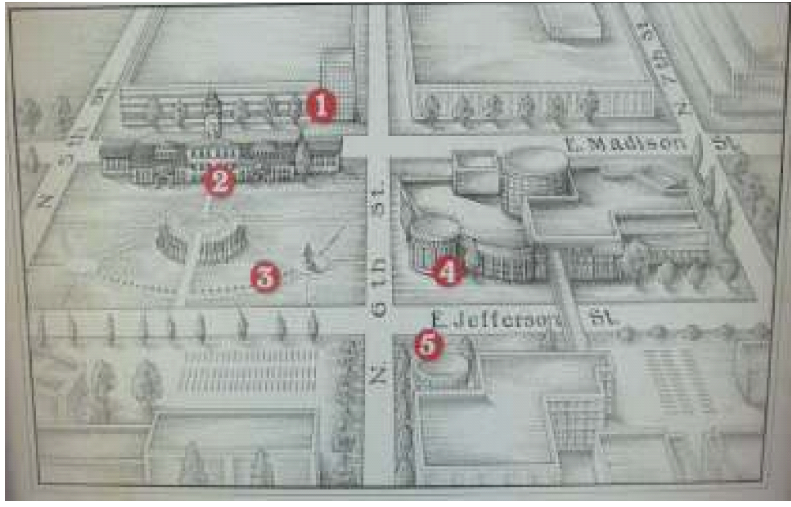
또한 열람실이 업무공간과 철저히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과 직원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록물 보안 상 큰 문제점이다. 기록물관리 공간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층간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박물관 수장고는 현재까지도 건물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기록물 처리공간도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곧 건물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기념품점과 카페테리아 운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통령기록관이다. 이는 수익사업이 초점이라기보다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경영 마인드, 즉 대통령기록관에 박물관 운영의 요소를 도입하는 기법이 큰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이외에도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시대정신, 봉사정신, 리더십을 자극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링컨 대통령기록관(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가. 링컨 대통령기록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연도) 2005년 - (건립예산)15,000만 달러 - (건립지역) 링컨이 변호사 개업을 했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 (인력) 총 85명 - (특이사항) NARA소속이 아닌 주정부 역사보존센터 소속, 박물관과 기록관 분리하되 회랑으로 연결
---	---

링컨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던 곳이자, 링컨의 묘지가 있는 곳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건립되어 2005년 4월 19일 개관하였다. 스프링필드는 오래전부터 링컨관련 유적지를 보존하여 링컨을 추모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의 규모가 작고 관광자원 또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스프링필드는 링컨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개발·관광개발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 아래서 링컨 대통령기록관을 건축함으로써, 링컨 대통령기록관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활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오래 전부터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와 박물이 스프링필드의 지역 기록관 지하에서 보존·관리되고 있었다. 스프링필드의 링컨 관련 자료는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링컨 관련 자료보다도 많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박물관 건너편 주차장 ② 박물관 건너편 시민공원 ③ 시민공원 입구 ④ 박물관 입구 ⑤ 도서관 입구 <p>* 박물관과 도서관 사이에 자동차 도로가 있고 도로 사이를 긴 회랑으로 연결</p>
---	--

건립을 계획할 당시에는, 링컨 유산센터 성격으로 건립하자는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링컨 추모자를 위한 기관으로 성격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스프링필드 지역으로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 즉 규모가 확대된 문화기관으로 성격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뒤이은 연구의 결과, 박물관과 기록관을 병행하여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건립은 스프링필드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총 1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기록관(도서관)에 2,500만 달러, 박물관에 9,000만 달러(전시 비용에만도 5,400만 달러)가 들었으며, 19세기 기차역을 리노베이션하여 주차장 건물과 방문객 센터를 조성하였다.

기록관(도서관)과 박물관이 각각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며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일리노이 역사보존기구(Illinois Historic Preservation Agency)의 한 분과 (division)이기도 하다.

나. 인력 구성 및 예산

현재 박물관과 도서관 운영인력은 56명이다. 여기에 링컨 페이퍼 프로젝트 13명, 분기별로 운영되는 인턴이 30여 명 내외, 자원봉사자는 560여 명 내외이다. 인턴과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정규 직원의 인력 현황 및 담당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립 링컨 대통령기록관 담당인력 현황²⁰⁾ >

이름	담당업무	이름	담당업무
Alan	관장	Melissa	인적자원관리책임자
Hannah	부관장	Michael	박물관 경영책임자
Nadine	비서실장	David	법률고문
Samuel, Ph.D.	일리노이주립 역사학자, 연구 및 수집부장, 도서관 관리책임자	Patty	마케팅 책임자
Shanta	도서관 경영책임자	Chris	대외협력 책임자
Megan	시청각실 시청각 복원담당(Iconographer)	Genevieve	교육 책임자
Roberta	사진 담당	Carla	전시품 등록 담당
Ian	인수실 인수담당 수석	Mike	전시 디자인 담당
Kregg	등록실 등록담당	Mike	전시 디자인 담당
Bonnie	보존연구실 복원담당	Ed	자금운영 책임자

20) www2.illinois.gov/alplm의 staff directory 및 annual report(2014) 참조

Ginny	보존연구실 지원	Nicole	예산 관리자
Bill	간행물 편집담당	Patty	고객체험 책임자
James, Ph.D.	링컨 해설 담당	Clare	고객서비스 관리자
Christian, Ph.D.	링컨전공 역사학자	Deb	고객 입장 담당
Debbie	매뉴스크립트 관리 지원	Tonya	단체관람 담당
Amanda	마이크로필름 연구실 신문 마이크로필름 담당	Britta	자료 대여 관리자
Teri	신문 사서	Sabrina	내부 행사 담당
Debbie Ross	신문실 지원	Jeremy	자원봉사 책임자
Mark, Ph.D.	구술사학자	Jared	자원봉사 담당
Daniel, Ph.D.	링컨 문서 프로젝트 관리자	Devon	자원봉사 담당
Kelley	부편집인	Jeremy	IT 관리자
Gayle	디지털 전문가	Cindy	IT 전문가
Lisa	열람실 관리자	Ronda	IT 전문가
Meghan	열람실 사서	Mike	보안책임자
Angela	가계도 담당 사서	Phil	극장 책임자
Bob	열람실 지원	Ed	극장 고객 담당
Christopher, Ph.D.	매뉴스크립트 관리자	Sam	극장 시스템 기술 책임자
Abby	극장 시스템 기술 담당	Jeff	극장 시스템 기술 담당

2014~2015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총 운영비는 약 1,580만 달러로 이 중에 90% 이상인 1,465만 달러가 주정부의 지원금이다. 주정부의 지원금 중에는 박물관의 입장료, 저작권료, 기념품 판매수익 등 링컨 기록관의 운영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직접적인 기부금, 공공기금 등이 총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해 주정부로부터 약 1,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사용에 대해 주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 소장 기록물(15km정도의 컬렉션, 매뉴스크립트 기록 보유)

인쇄 자료로 175,000권 이상의 책과 팸플릿, 3천 개의 지도, 1,200종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컬렉션은 개인, 도시, 지역, 농업, 상업, 종교, 운송 등과 관련한 것이며, 링컨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기 기록물은 1700년대 중반부터 수집된 것이다.

시청각 자료로는 35만 점 이상의 사진과 함께 1,200점의 구술사, 3,800개의 테이프, 2,500개의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5,000개의 매뉴스

크립트 컬렉션에는 1,050만 점 이상의 편지, 대장(ledger), 일기, 기관 기록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일리노이주의 회사, 개인, 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입법부 위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이며, 주요 자료들은 개척 여행과 정착, 농업, 내전, 의료, 여성사, 노동사, 사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신문류로는 5천 개의 신문을 9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필름 릴에 담아 소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102개 주의 신문들이며, 현재 300개 이상의 신문을 구독중이다.

소장 기록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기록관의 역할 이외에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관 자체로도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라. 주요 업무 현황

링컨기록관의 업무분야별 현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존복원 분야

종이관리가 주된 대상이며 고문서, 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담당자는 33년간 이 분야 전담자이며 스태프 1인과 자원봉사자 등 3명이 같이 일하고 있었다. 보존의 방향은 수집 상태,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보존방법을 달리한다. 자체 복원외에도 외부 의뢰를 통하게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보존수선용지는 대부분 일본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존대상은 링컨시대 사진들이 대부분이라 처리를 오히려 최소화 하고 해가 되는 요소들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보존 담당자는 33년간 이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보존위원회 컨소시엄,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신장시켜 나가 고 있다.

시청각 복원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생소한 'iconograph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중세시대 그림 관리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사진, 시청각 관리자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명칭은 아니나, NARA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복원 대상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훼손되기 쉬운 것을 우선 처리하며 AV, 메뉴스크립트, 종이 등을 'iconographer'가 관리한다.

보존실 또는 서고의 크기는 초창기에 가급적 크게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링컨대통령기록관도 처음에는 공간이 모자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건설했는데 현재는 규모가 맞지 않아, 초창기 비용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매주 새로운 컬렉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서관위원회에서도 처음 계획보다 더 크게 지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을 당시에는 기부품목에 대한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2) 구술사 분야

링크기록관에는 주정부역사에 대한 구술기록이 보존되고 있다. 구술은 대체로 인터뷰 준비 및 사전 인터뷰, 본 인터뷰, 내용 정리, 홈페이지 서비스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우선 인터뷰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배경 등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인터뷰는 인터뷰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한다. 사전 인터뷰가 끝나면 본 인터뷰에 들어가는데, 인터뷰에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인터뷰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반대로 인터뷰어는 솔직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구술자가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인터뷰 장소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구술 대상자들은 본인의 집을 선호하고, 본인의 집이 편안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화가 울리거나, 가족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끊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구술을 대부분 영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표정 등 정보가 다양하나 대용량의 저장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곳의 구술채록 담당자는 1명으로 1명의 인턴과 약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구술내용을 채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한 시간 인터뷰의 경우, 문자화 하는데 5~8시간이 걸리며 완전히 구술채록을 완료하는 데는 보통 30~40시간이 소모된다. 문자화가 끝나면 쓸데없는 말들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경우 편집에 넣어야 한다. 또한 6.25, 베트남전 등 다른 나라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 하기 단어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축약어, 주석 등은 듣는 그대로 적고 추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구술채록을 마친 기록물은 대체로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치인들이 솔직하기는 힘들어서 10년, 20년, 사후로 공개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현재 담당자는 지난 3년간 30회의 인터뷰를 수행하는 등 일리노이주 역사에 관한 구술채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구술채록 대상은 관장과 주립 역사학자(수집보존부장)가 선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역사전문가

의 판단이 큰 작용을 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리노이 정치와 관련해서 8가지 세분화된 주제를 운영하고, 특이할만한 사항은 주지사와 주지사의 정적들도 인터뷰를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3) 링컨문서 프로젝트(Lincoln Paper Project)

링컨기록관에서는 18년 동안 '링컨의 문서'라는 다크먼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링컨의 변호사 시절 이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절 이후의 다양한 문서들을 발굴해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링컨 관련 문서를 찾아냈을 때 흔쾌히 도서관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발견된 곳의 개인 및 단체에서 이를 소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링컨기록관에서는 해당 기록물의 사본제작, 또는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문서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국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링컨대통령기록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4) 열람 분야

연구자들이 열람을 원할 경우 다른 부서와 공조를 해서 찾아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7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열람분야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신문에 대한 요청이 많다는 점이었다. 특별히 신문관리와 수집에 집중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공식 정부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요소로 신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신문은 1814년 출판본이다.

일리노이주 역사에 관한 것도 이곳 열람실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본래 전신이 일리노이주립 역사박물관이었기 때문에 1890년대부터, 가능한 많은 역사와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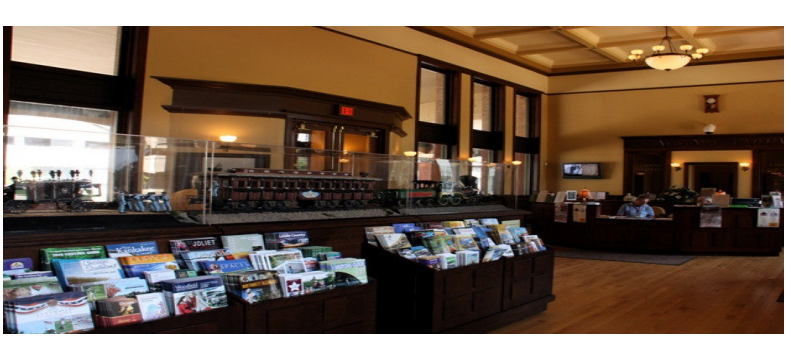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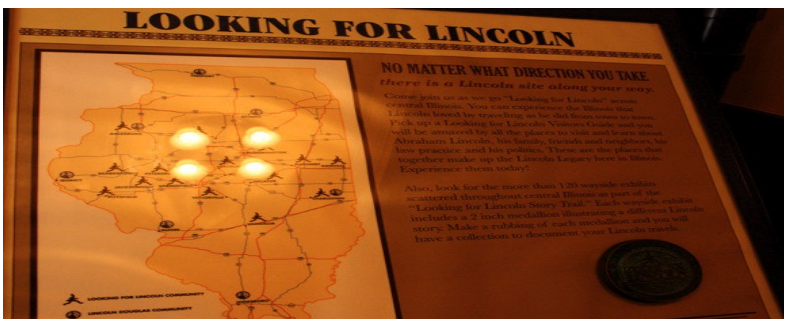
외부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카달로그로 작성되어 큰 컬렉션의 경우, 이름별로 작은 컬렉션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배치하고 있다.

마.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지역공헌 및 공공 서비스 활성화

일리노이 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는 중부의 작은 도시로 주지사와 주 의사당이 있는 행정도시이며, 1955년 주 의회가 채택한 일리노이 주의 구호는 '링컨의 땅'이다.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2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고,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학교는 89개나 되며, 일리노이 주의 자동차

변호판에는 링컨의 얼굴과 ‘링컨의 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로 링컨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강한 도시이다.

스프링필드는 링컨이 변호사로, 주의원, 연방하원의원 등 공식생활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키운 곳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 DC를 향해 가족과 함께 출발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스프링필드 중심지 연방청사에서 5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의 사저 일대가 국립역사사적지로 지정돼 있다. 그의 변호사 사무실인 링컨-헌돈 로 오피스(law office), 출석하던 제일장로교회 등에는 그의 가족들이 즐겨 앉던 자리가 보존돼 있는 등 미 전역 10여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링컨 사적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광범위한 지역이 NPS에 의해 ‘국가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²¹⁾ 2005년에 개관한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링컨 대통령 도서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p>스프링필드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링컨 동상과 인포메이션센터</p>	
<p>기차역을 리모델링한 인포메이션센터 내부</p>	
<p>링컨 생가와 변호사 사무실, 자주 걸던 길 등 관광안내센터의 안내판</p>	

21) 라운도, “미국 대통령도서관제도의 역사적 고찰,”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제41집(2016), p. 179.

<p>링컨 관련 역사를 주제로 개최하는 지역 프로그램 안내서</p>	
<p>링컨 대통령 기록관(우측) 및 박물관(좌측) 전경</p>	

1) 박물관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그중 대표할 만한 것은 링컨 대통령박물관 건립·운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이다. 링컨 대통령박물관의 방문자수는 2005년 개관 이후 꾸준히 늘었으며, 2012년에 이미 30만 명이 넘었다. 2009년 링컨 탄생 200주년에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박물관을 찾았으며, 2013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링컨(Lincoln) 영화의 홍보 효과로 31만 3,744명이 박물관을 방문했다.²²⁾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전시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시기획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관람객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테마파크와 전통적인 박물관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체험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시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보도 듣고 느끼면서 링컨과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내용을 개발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한 전시기법과 연출을 활용한 것이 링컨 대통령기록관 전시의 특징이다.²³⁾


링컨 대통령박물관에는 링컨 인생에서 주요 사건과 관련된 사진, 기록물,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어린 시절 살던 생가와 취임 후 백악관에서의 생활을 재현해 냈으며, 링컨의 서명이 있는 ‘노예해방선언문(Emancipation Proclamation)’

22) <http://www.sj-r.com/article/20140102/NEWS/140109974> (cited, 2018. 8. 11)

2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p. 80-81.

과 안경과 면도 거울 등의 일상용품과 부인 매리 링컨(Mary T. Lincoln)의 물품 등이 주요 전시품이다. 전시 이외에도 ‘링컨의 눈물(Lincoln’s Eyes)’과 ‘도서관의 유령들(Ghosts of the Library)’같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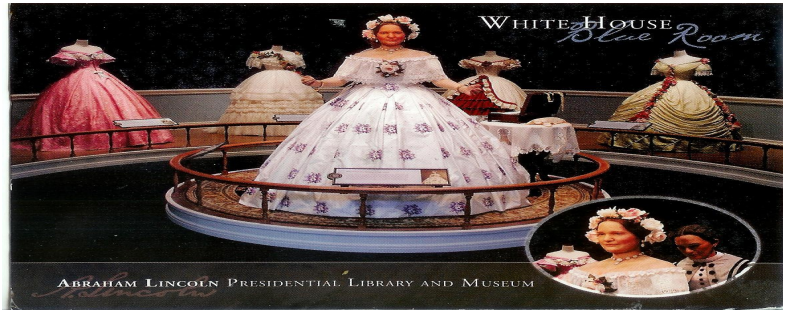
< 링컨 대통령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 현황 >

<p>링컨 가족의 동상이 있는 ‘중앙광장’</p>	
<p><대통령 취임 전> 링컨이 어린 시절 살았던 ‘오두막집’ 내·외부 전시</p>	
<p><대통령 취임 전> 링컨이 노예에 대해 인식하게 된 ‘노예 경매’ 전시</p>	
<p>링컨의 삶과 시대상을 링컨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내용의 ‘유니온 극장’</p>	

24) <http://www.alplm.org/> (cited, 2018. 8. 11)

<백악관 시절>

링컨의 부인인 메리가
입었던 ‘드레스 전시’



<백악관 시절>

노예해방선언에 대한 회의
중인
‘백악관 집무실’



남북전쟁 관련 물품 전시인
‘전쟁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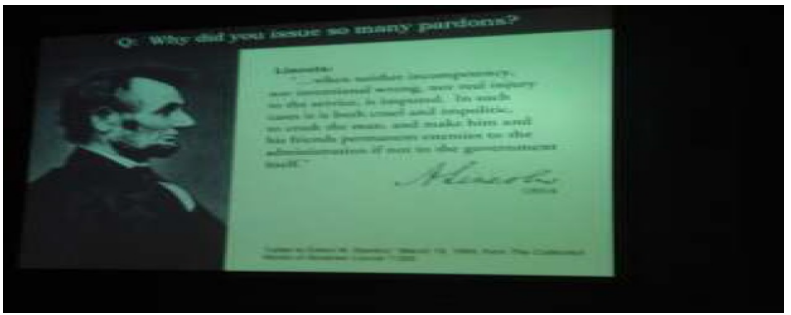


전자지도를 통해
전투라인을 설명하고
전쟁의 경과를 안내하는
‘전쟁 갤러리’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매장하는 모습 등을 그린
‘게티스버그
벽화 갤러리’



<p>‘대통령 암살’ 포드 극장의 귀빈석에 있는 링컨을 저격하는 존 부스</p>	
<p>1865년 5월 스프링필드의 구 국회의사당에 안치된 ‘링컨의 관’</p>	
<p>방문자들이 질문을 선택하면 링컨의 말로 대답해주는 ‘링컨에게 묻기’</p>	
<p>링컨의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의 유령’</p>	

2) 도서관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일리노이 주는 링컨 대통령기록관 건립 당시, 대통령도서관의 역할에 기존 운영 중인 ‘주립 역사 도서관’의 기능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링컨 대통령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며, 명실상부한 일리노이 주의 대표 도서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도서관 건립·운영은 지역의 도시재생과 교육·문화시설을 연계한 대표사례로 볼 수 있다.

링컨 대통령도서관에는 링컨의 삶과 남북전쟁(Civil War) 관련 도서, 논문 및 유물을 수집 및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서관은 1889년 개관한 일리노이 주립 역사 도서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일리노이 주의 역사 자료 또한 수집 및 서비스하고 있다.²⁵⁾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8개의 전시회, 50여 명의 작가와의 만남, 약 1,700개 학교에서 6만 2천 명의 학생이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²⁶⁾ 링컨 대통령기록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링컨 대통령기록관(도서관)의 프로그램 현황²⁷⁾ >

프로그램	내 용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들을 위한 교안 표준과 함께 학생과 교사들이 대통령기록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전시에 대한 가이드 제공 ·교사 오리엔테이션(Teacher Orientation), 연구 콜로키움(Research Colloquium)은 물론 일리노이의 노예제도(Slavery in Illinois), 메리와의 만남(Meet Mary Todd Lincoln)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개최 ·대학생과 졸업생을 공공기관 행정기관 기록관 등에 연계시켜주는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연구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영리 학생조직(not-for-profit youth organizations)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이 30% 이상인 일리노이즈 주립·사립학교의 4~12학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원 장학 프로그램(Field Trip Grant Program) 운영 ·자매결연 학교와 교육 기관에 미국 역사 교육 지원금 제공
공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의 여러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기록관을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장소로 만들고 있으며, 대여가 가능한 공간은 아래와 같음 ·기록관(도서관) : 중앙홀(Lincoln Atrium), 연회장(Lincoln Reception Room), 연회장 갤러리(Reception Gallery), 다목적룸(Multi-Purpose Room), 링컨 컨퍼런스룸(Lincoln Conference Room, Governor's Conference Room), 강의실(Two Classrooms), 컴퓨터연구실(Computer Lab), (이상 아카이브) ·박물관 : 박물관 광장(Museum Plaza), 유니온 극장(Union Theater)

사. 링컨 대통령기록관 시사점

1) 링컨 대통령기록관과 지역사회의 관계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문화기관이 도시 부흥에 완벽하게 기여한 사례이다. 작은 도시 에 문화기구가 설립되어 활성화되자, 이를 중심으로 유명 기업(예를 들면,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의 지점이 들어오기도 했다.

링컨 대통령기록관 사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립을 통해 문화기구가 도시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25) <http://www.alplm.org/> (cited, 2018. 8. 11)

26)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Foundation, Annual Report : FY 2017, p. 2.

2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p. 84.

문화기관은 도시와 별개인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통합(integration)되어야만 그 의미를 다할 수 있으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2) 2개의 독립된 건물로 건립한 사례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박물관과 도서관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자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박물관은 철저하게 전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링컨 대통령기록관 사례는 일반대중을 위한 공간[Public]과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특정 이용자를 위한 공간[Researcher]을 별도로 구성하여 2개의 건물로 건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중요한 기록물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서비스한다”는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공간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 주요 활동 사진



소개 및 인사



전체회의



구술사 소개



담당업무 및 역할 소개(복원)



기록물 복원



기록물 정리, 등록실



주요 기록물(링컨의 모자)



링컨 마스크(실제 모습)




주요기록물(게티즈버그 연설문)



교육프로그램 시연

5. 오바마 대통령 센터(Obama Presidential Center)²⁸⁾

가. 오바마 대통령 센터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연도) 2021년(예정) - (건립예산) 약 5억 달러(예정) - (건립지역) 시카고 잭슨공원 - (건립면적) 약 80만 평방피트 - (특이사항) NARA소속 기록관이 아닌 순수민간 센터(*기록물 NARA 보관)
---	---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공개 혁신, 디지털 중심의 기록관리 지향, 소셜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 종이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 소셜 미디어의 기록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지 않고 박물관, 광장,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강당 등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시설로서 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약 80만 평방피트 이상이며 비용은 약 5억 달러, 장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잭슨공원 이다.

이 건물은 기존의 대통령기록관을 따로 건립하지 않기 때문에 건립비용의 60%를 운영자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디지털화할 비용을 오바마 재단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디지털화한 기록물들은 모두 시스템에 담겨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될 것이다. 단, 기록물의 원본은 미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의 지역 보존소에 보관될 것이며, 이 중 비공개 기록물은 워싱턴의 NARA 본부에서 보존하게 된다.

나. 오바마 대통령 센터 건립방향

오바마센터의 건립은 기존의 대통령기록관보다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오히려 유사성을 갖는다. 현대의 공공도서관들은 공용 컴퓨터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자가 세계와 연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토론공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학습센터, 성인문맹 퇴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사무기기, 다양한 디지털 도구 또한 함께 제공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8) 오바마 센터는 현재 시카고 잭슨공원내 건립예정지로 건립의 방향, NARA와의 관계 등에 관해 발표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사용자의 요구가 진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공 도서관은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과는 다른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오바마 문화센터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고객서비스에 더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센터와 공공도서관은 그 대상범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오바마 센터는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의 세계성, 역사성에 의해 단순히 지역 범위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오바마 센터내 박물관의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박물관 전시를 위해 원본에 대한 대여협약을 NARA와 맺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박물관에는 원본 행정박물관이 전시될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이 경우 NARA에서 정한 행정박물관 관리 및 전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NARA와 연방정부의 통제 없이 오바마 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 오바마 센터 조망도29) >



①, ⑦잔디밭, ②박물관, ③포럼장, ④광장(플라자), ⑤공공도서관, ⑥자연놀이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

다. 오바마 대통령 센터 논란

오바마 센터의 건립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시카고의 환경, 시민단체 및 흑인사회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최초 이 건물은 모두 민간에서 거둔 재단기부금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카고 시에서 장소의 거의 무상임대와 인

29) www.obama.org/annual report 2017 참조

접 도로 등 인프라 공사(약 1억 7,500만 달러)를 약속하면서 세금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근에는 이 시설이 공공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시설임이 알려지면서 민간시설의 공유지 무단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련의 반대로 인해 현재 오바마 센터는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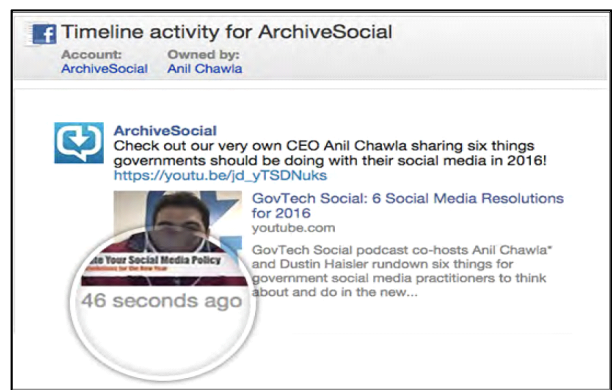
라. 오바마 대통령 소셜 미디어 아카이빙 서비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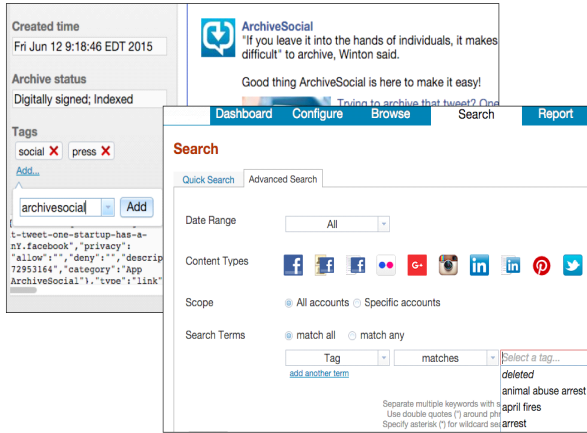
2017년 1월 퇴임한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경우,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였다. 특히 수많은 정치 관련 이슈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댓글로 올린 내용들도 정책으로 반영하는 등 기존의 대통령기록을 종이

에서 미디어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후에 필수 코스로 준비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종이기록이 아닌 ‘미디어 기록’으로 재생산 및 이관하여 보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기록들을 수집하고 이관하는 솔루션(Archivesocial)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콘텐츠의 종류나 형식에 상관없이 해당 미디어 기록들의 최초 생산포맷 그대로를 캡처하여 보존한다. 예를 들어 사진은 전체 해상도로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링크 또는 미리보기 이미지로 표시한다. 또한 계층적 방식이 아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된 기기의 종류나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의 플랫폼은 단순한 웹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HTML의 스냅 샷을 찍는 것 이상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미디어기록의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메타데이터(사용자ID, 타임스탬프 및 기타정보)들도 포함된다. 또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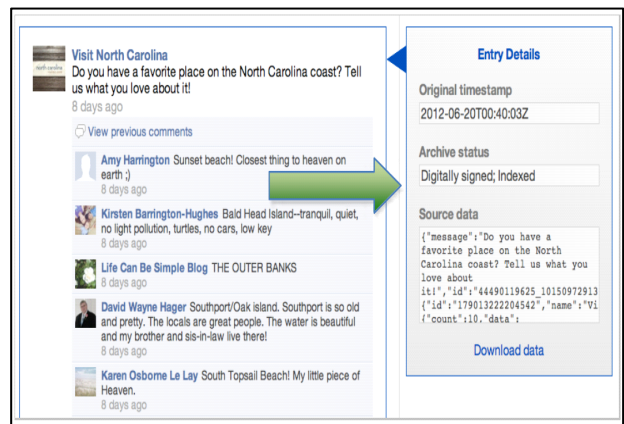


종 소송 및 법적 상황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본성을 위한 디지털서명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해당 이미지들의 위변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ArchiveSocial은 향후 원활한 열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콘텐츠유형, 날짜범위, 네트워크 종류, 키워드, 참여자, 태그 등과 같은 고급 검색옵션 도구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열람요청이 들어올 경우 PDF, HTML 및 Excel 등 다양한 형식의 포맷으로 해당 미디어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다.

최근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을 보면, 이제는 전자기록을 넘어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들의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준비중인 대통령기록관의 전자기록물 수집대상 및 방법, 형태는 본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시사점 및 제안사항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제도, 현황,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맺음말에서는 그간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대통령기록관 모델 창출을 위해서 새롭고 다양하며 역사성이 있는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트루먼대통령 기록관은 일리노이주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있지만, 연인원 8~20만의 관람객이 찾는 기록관이다. 트루먼대통령기록관이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힘은 그들의 기록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2차 세계대전과 원폭투하, 트루먼 독트린, 6.25전쟁과 유럽의 마셜플랜, 베이비붐 시대로의 전환 등 세계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사건들 속에 트루먼대통령의 기록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관람객과 연구자의 확보는 끊임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힘이 결국 기록관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은 건물이 주는 조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칸소주 유일의 대통령이라는 면에서도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재임기간이 1990년대로 비교적 최근과 가깝고 기록물이 갖는 무게 또한 트루먼기록관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클린턴대통령기록관의 기록열람자 수는 부시(II)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202명 수준이다. 아이젠하워(1,389건), 케네디(1,182건), 루즈벨트(1,024) 등의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 8년이라는 재임기간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유명 작가인 헤밍웨이 컬렉션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는 등 콘텐츠의 확보와 전시기법의 변화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경우도 링컨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의 역사라는 지역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국민과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특징점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도 재임기간이 짧고, 국민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제고할 만한 콘텐츠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록물의 힘만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대통령기록물만이 아니라 지역 기록물 또는 유명인, 아니면 다른 대통령과 연결하여 콘텐츠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방법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대통령기록관 체계와 관련하여 혼합형 개별대통령기록관 체제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 모델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간 미국연방정부 소속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혼합형 대통령기록관으로 주목할 만하다. 링컨 대통령기록관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의 역사기록물과 링컨 기록물의 결합,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전략,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유대강화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지역 또는 민간 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에도 혼합형 대통령기록관의 건립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기록원, 경남 기록원 등이 이미 개원을 했고 몇몇 곳에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관련 기록물만으로는 방문객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 때 인기를 끌었던 지

역사 연구나, 지역의 민속박물관 건립이 현재는 모두 흐지부지 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기록물관리기관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존소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투명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록물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즉 적극적인 활용과 유용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않는다면 쉽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지방에 많은 국공립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재 많은 지방의 대학들이 폐교하거나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지역의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한다면 비용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오바마 센터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바마 센터 모델은 대통령기록물을 정부 소속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시키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지, 기록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이자, 문화, 복지,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춰 지역과 사회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 활동에 대한 기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퇴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라고 생각된다. 카터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전직 대통령은 국제관계에서 유용한 인적자산일뿐더러 국내에서도 국정경험을 살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을 기록화 하고 재임 시 기록물과 함께 관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센터형의 모델은 정부의 통제없이 민간단체인 대통령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직대통령의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활용가능한 모델이다.

또 하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미 연임에 성공하여 지지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이 아닌 지지자들의 기부금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나라에 기증했다는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쉬운 구조였다고 생각한다. 반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용활성화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대통령 재임 시의 국제적 환경과 국내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시대사전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정책의 집행, 경과, 결과 등을 기록한 모든 정부문서를 보존,

공개하고 있어 역사자료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초·중·고등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역사와 정치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관은 시민에게 기록관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 의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³⁰⁾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활용보다는 기록물의 수집·보존 기능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출발이 늦어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겠지만,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합대통령기록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대통령기록의 민감성, 대통령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기록관 모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문화요구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록관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기록관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거쳐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적 연계 활성화를 통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활용에 대한 접근을 문화적 개념으로 풀어가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지역 활성화 사례 모델로 링컨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교육·문화시설의 역할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의 수행으로 지역의 경제적 가치까지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기록관은 지역의 문화시설이자 도시 부흥에 완벽하게 기여한 사례이다. 작은 도시에 문화시설이 설립되어 활성화되자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기업의 지점이 들어섰다. 이러한 사례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이 도시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역의 문화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융합되어야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지역의 관광 활성화까지도 이끌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³¹⁾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개별 대통령 행정부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의 다양한 활용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건립·운영의 추진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이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 라운도, “미국 대통령도서관제도의 역사적 고찰,”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제41집(2016), p. 185.

3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p. 85.

참 고 문 헌

< 법 · 규정 >

1.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2. 미국 대통령기록관법
3.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
4. 미국 대통령 기부금개혁법
5. 미국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보존법
6. 미국 국립기록관리청법 제2112조-대통령기록물보존소
7. 국립기록관리청 규칙-대통령기록관리(제1270장)
8. 닉슨 대통령기록물 이용에 관한 규칙
9. 행정명령(Executive) 제13233호-부시(II) 대통령의 명령
10. 행정명령(Executive) 제13489호-오바마 대통령의 명령
11.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협약서
12.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전자우편 기록과 관련한 양해각서
13. 조지 부시(II) 행정부의 전자기록 이관에 관한 양해각서

< 대통령기록물 판례 >

1. 미국정부와 닉슨 사이의 소송(연방대법원)
2. 닉슨과 총무처장관 사이의 소송(연방대법원)
3. 시민단체와 버크(국가기록관리청장 대리) 사이의 소송
4. 미국 역사학회와 피터슨(국가기록관리청장 대리) 사이의 소송
5. 시민단체와 법무부 · 국가기록관리청 사이의 소송
6. 암스트롱과 대통령실 사이의 소송
7. 미국 역사학회와 국가기록관리청 사이의 소송

<국내문헌>

1. 기록경영리서치&서비스, 대통령기록물관리 선진화연구: 대통령기록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2. 국가기록원, 2007,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3. 배인성, 2007, 대통령 기록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정용오, 2011,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박희정, 2014, 대통령기록관리의 쟁점과 대안 모색,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정수진, 2016, 미국 연방기록법 및 대통령기록법의 개정과 그 의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라운도, 2016, 미국 대통령도서관제도의 역사적 고찰,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제41집
7. 국가기록원, 2018, 해외대서널 아카이브즈 전자기록관리 전략 자료집

<외국문헌>

1. NARA, FY 2018 Annual Performance Plan and FY 2016 Annual Performance Report, p. 14.
2. NARA,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FY 2005 - FY 2013
3.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Foundation, Annual Report : FY 2017
4. NARA, 2013, Transferring Permanent Records to NARA Using ERA: Cross-walking the ERA Transfer Request to the SF 258
5. NARA, FY 2018-2022 Strategic Plan

<인터넷사이트>

1. www.archives.gov/about/organization
2. www.archives.gov/files/about/organization/orgchart-1.pdf
3. 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programs/education.html
4. www.trumanlibrary.org/educatio.htm
5. www.clintonlibrary.gov/education/educators/education-programs/
6. www.sj-r.com/article/20140102/NEWS/140109974
7. www.alplm.org/
8. www.archives.gov/about/laws